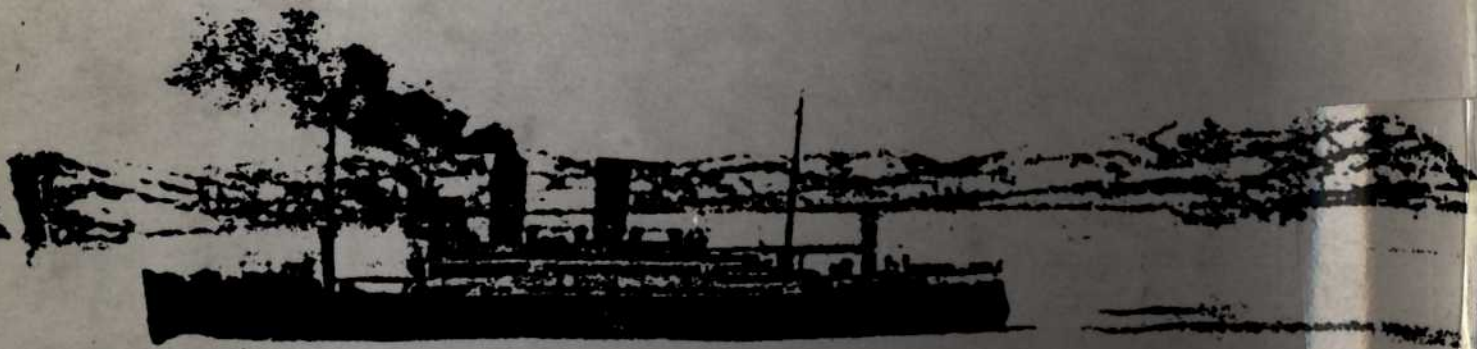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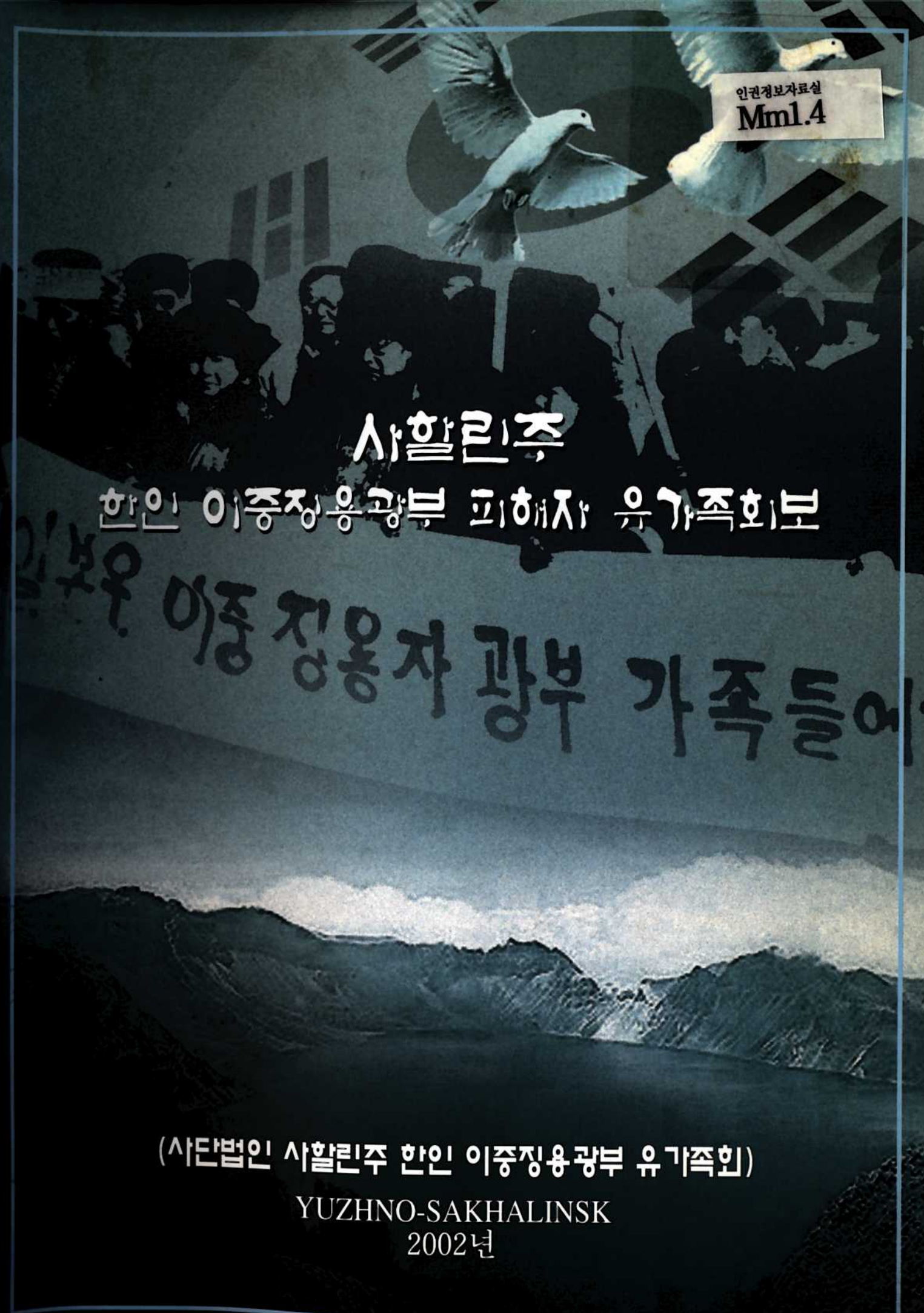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ИДУН ДИНЕН
 САХАЛИНСКАЯ
 ПРИМУДИТЕЛЬНО МО БИЛИЗОВАННЫХ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У
 ИДУН ДИНЕН
 КОРЕЙЦЕВ
 КОРЕЙЦЕВ



인권정보자료실
Mm1.4

아니와 마루
 -사할린 이종징용광부 유가족회

인권정보자료실
Mm1.4



사할린주

한인 이종징용광부 피해자 유가족회보

이종징용자 광부 가족들이

(사단법인 사할린주 한인 이종징용광부 유가족회)

YUZHNO-SAKHALINSK
 2002년

목차

- 1 목차 유가족회(2~3)
- 2 책을 펴내면서 유가족회(4~5)
- 3 간결한 인터뷰 유가족회(6~7)
- 4 대한민국 대통령 각하께 드리는 편지 유가족회(8~9)
- 5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에 드리는 편지..... 유가족회(10~11)
- 6 대한민국 국회의장님께 드리는 편지 유가족회(12~13)
- 7 대한민국 적십자사 총재님께 드리는 편지..... 유가족회(14~15)
- 8 일본 적십자사에 보낸 서신 및 답신 유가족회(16~17)
- 9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회장 서정길) 유가족회(18~19)
- 10 이증징용광부에 대하여 유가족회(20~23)
- 11 사할린 각 탄광별 노무자 및 탄광규모 유가족회(24~58)
- 12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발행된 일본 화폐 및 채권 유가족회(59~65)
- 13 이증징용광부들의 적립금 내역 및 우편저금상황..... 유가족회(66~69)



- 14 사할린 이증징용광부 유가족들의 성명서 및 집회모습 유가족회(70~81)
- 15 일본 기자의 편지..... 유가족회(82~83)
- 16 이증징용광부 유가족들의 진술서 및 탄원서 유가족회(84~131)
- 17 사할린주 한인 이증징용광부 유가족회 대표단의 사진 자료 유가족회(132~144)
- 18 북해도 신문에 게재된 이증징용관련 기사모음 유가족회(145~148)
- 19 결의문 유가족회(149~150)
- 20 재일조선인사 연구..... 유가족회(151)
- 21 전시하 강제 연행 극비 자료집 유가족회(152~187)
- 22 진술서 원본..... 유가족회(188~210)
- 23 사할린 이증징용광부 유가족회 명부 유가족회(211~223)
- 24 탄원서 유가족회(224~226)
- 25 편집후기..... 유가족회(227)

책을 펴내면서

동포 여러분께!



동포 여러분들! 이 책을 내가 꼭 써야 된다는 의무감을 금치 못하여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성격은 다름 아니라 제 2차 세계대전 발발 전후를 거쳐 일본 정부가 현 한국 (당시 조선) 남반부 지역에서 몇 만명의 조선 청장년들을 현 사할린섬 남부의(카라후토 외) 탄광으로 모집, 동원, 근로, 보국대, 징용의 강제 형식으로 국민총동원법을 발표하고 연행하여서 탄광 노무자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은 온세상이 잘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패전한 일본 정부는 이 동토의 사할린섬에서 자기들 31만2천4백5십2명의 일본인들만 귀국시키고 한인-조선인들은 귀국의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현 시점에 사할린 한인 문제라는 국제적 문제점으로 나타나서 일본 정부는 여러차례에 걸쳐 사할린 한인 생활실태 조사라는 것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현재 500세대 노부부 100명의 독신 노인들의 요양원 입주 또 대창(대한민국 경상북도 고령군) 사랑의 집, 기타 총합 1,500명 정도의 노인들을 영주귀국 시키는데 32억엔의 예산을 내놓고 2~3세대들을 위한 모국방문을 매년 전세기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센터, 건설비용은 그 안을 내놓은지 3년이 지나도 아직 아무일도 시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실례이기도 하면서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필자는 사할린 한인 문제에 관한 다른 사실을 일본 국회 및 정부, 그리고 일본의 사회계에 널리 알리고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마음에서 이 책에 기술하게 되었으며 1944년에 사할린섬(남부 사할린 일본령)에 있었던 민족 대이동과 같은 실례를 기술하여 일본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 해명에 적극 협력하여 주며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일본의 사회계 뿐만 아니라 한국, 러시아, 나아가서는 세계 각국 사회계에 호소하여 3,000명 이상에 달하는 한국, 조선인 탄부들의 생사를 비롯한 행방, 운명과 가족들의 운명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그들에게 근 60여년간의 고된 생활의 대가로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침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이중징용광부들, 유가족에 대한 일시 지원금이라도 지불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며 특히 70~80세의 고령자들에게는 하루속히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일본정부에 요청하는 기본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 사실 그대로 기술하여 보는 바입니다.

동포 여러분들 이 책의 기본 사명은 사할린 한인 문제와 그들의 과거의 실사를 진실로 재현하여 사할린 한인, 조선인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데 있습니다.

필자가 이 책에서 지적하는 자료의 많은 부분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공문서보관국에서 발췌한 일본학

자 나가사와 시게르의 연구자료이며 당시에는 비밀, 극비로 되어 있던 공문서이며, 또 이중징용 유가족들 중 생존해 있는 사람들의 증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는 사할린주 공문서 보관국에서 찾은 것이라는 것을 밝혀두며, 자기들이 직접 체험한 사할린한인 이중징용 광부들의 많은 자녀들의 비극적인 운명의 실화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사람들과 사회계가 사할린한인 역사에서 생긴 두번째 새로운 분류의 이산가족에 대한 진상을 젊은 세대들이 알고 또 일본의 젊은이들도 이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이중징용 광부들과 그 가족들의 비참한 운명은 국제사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944년 8~9월에 일본정부에 의하여 사할린에서 일본 내지로 재징용 연행된 3,000여명이 넘는 한인탄부들의 운명을 판명하여 그들이 어떻게 가족을 또 사할린에 남겨두고 큐슈 이바라기현 탄광으로 강제 연행되어 산지사방으로 흩어졌으며, 오늘날까지 서로 거주지,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채 남편, 아버지, 형제들을 일본정부에 빼앗기고 고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오늘도 이땅에서 신음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미흡하지만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또 왜, 오늘날까지 사할린 한인-조선인 문제에서 이점을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일언반구의 말도 글도 쓰지 않는 것이 유감이며 의심스럽습니다. 역사에서 이 사실을 영원히 묻어버리려는 자세일까요? 또 이 분류의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져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중징용 탄부 문제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또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해답을 얻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일제 패전 일년을 앞둔 1944년 8월 11일의 일본 정부의 결정임을 재삼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그 대답을 일본정부에서 얻기 위하여 저자가 어떻게 어떤 방침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독자 여러분들에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상 그대로 기술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이책을 출판함에 성심성의를 다하여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사할린주 노인회 고문 정태식씨의 사심없는 협력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어느 독자가 일어로 번역하여 출판해 주시면 더 없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책은 일부가 한국어, 일본어로 되어있으므로 독자여러분들에게 학술적 관심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일본사람들과의 패인 골을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는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할 것을 마음깊이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중징용이라는 일본의 만행속에서 먼저 간 조상님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2000년 10월 1일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서정길

사할린 이증징용광부 유가족회 회장 서진길씨 (본명 서정길)



그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직책을 성실히 지켜나가면서 으름가는 기업을 만들었으며 아울러 동포 노인들의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 안타까워 해 오던 서정길씨는 금년부터 이증징용광부유가족회의 사회사업에도 남다른 열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언제나 소탈하고도 곧으며 꼭 하고야마는 성미를 갖고 있는 서진길씨(본명)서정길. 그의 내면세계를 밝혀내기 위해 이복순 기자는 사할린 이증징용광부유가족회 서진길 회장을 이 지상의 손님으로 안내했다.

연세:

57세

이름:

족보에 의하면 이름은 서정길이고 파스포트를 서진길이며 의부의 슬하에서 자랄적에는 성조차 최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들:

아버지의 이름은 서자근씨(1905년생)이고 어머니는 이점순씨(1917년생)입니다. 아버지는 1942년도에 일본군국주의자들에 의해 도로(사흐초르스크시) 탄산에 끌려왔다가 다음 44년도에는 일본 큐슈관광으로 이증징용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3개월 후 제가 태어나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조차 똑똑히 몰랐죠. 의부와 어머니마저 일찍이 돌아가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금년 3월 유즈노사할린스크 일본 총영사관 건물 앞에서 피켓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아버지와 함께 징용되었던 사람의 아들, 도로에 사는 오씨를 그 때 만났습니다. 그가 그 당시 부조가 적혀있는 장부가 이제까지 보관돼 있는데 거기에 저의 아버지 이름이 정확히 써어있었다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무경력:

와흐루쎬브 중학교를 졸업하고 네웰스크해원학교에 입학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째서 바로 거기가 하면 국가에서 몽땅 보장해주는 학교였기 때문이었어요. 누나집에 있으면서 부담으로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소련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첫째해에 입학하지 못했어요. 차후 이미 3학년에서 공부 할때 소련국적을 내게 되었습니다. 해원학교를 마치고 "드루즈바" 수산물호즈 기계체호주임, 직업동맹위원회 위원장, 10여년동안은 수산물호즈 자매회사 사장인데 관리하에 "스트레코드르" 선박을 갖고 있습니다.

포로나이스크에 거주할 때 시한인회의 회장으로도 일했습니다.

실생활에서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성과:

사회사업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큰 성과를 달성하고 싶으나 아직 그것을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이증강제징용광부 유가족들의 명부를 작성하여 일본 관계자들에게 제출했지만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한국 대통령 행정부에도 그것을 알리기 위해 인터넷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현재 자기 앞에 내세우는 목적:

이증징용에 관계되는 고문헌들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일본정부에 요구할 것이며 이증강제징용회생자들을 추모하여 사흐초르스크시에 위령비를 세울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흐초르스크시에서 가장 많이 이증징용되었기 때문에 그 곳이 정해져있습니다.

종교의 관계:

일부 교인들에게 지원은 주고 있으나 종교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사항:

기혼자로 자녀 둘을 두고 있어요. 아들(32세)은 코르사코브 "렌복" 회사 사장이며 딸(24세)은 대학원 연구생이며 아내는 주부입니다.

좋아하는 색깔:

빛깔을 잘 가려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어느색이든 좋아해요.

좋아하는 명절:

새해, 봄의 명절들

좋아하는 계절:

여름과 황금가을

좋아하는 요일:

월요일과 금요일

좋아하는 음식:

떡

좋아하는 술:

빨간 포도주

과음하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아마 건강이 허락하니 술을 먹겠쥬. 저는 그들을 부러워할 뿐입니다.

갖고 있는 자동차와 희망하는 자동차:

보통의 차를 갖고 있으며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라고 생각하쥬. 다만 그것이 잘 시동되고 운전되면 충분합니다.

좋아하는 한국말:

미래

좋아하는 러시아말:

"마마"와 "빠빠"-이 말을 거의 해 보지 못했으나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더 가깝고 귀중하게 여겨집니다.

좋아하는 휴식터:

한 15년동안 휴가받지 않고 일하여 왔어요. 저에게 있어서 일이 휴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들에 자주 출장나가 있는 것이 휴가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드는 도시:

물론 포로나이스크시쥬. 거의 청춘시절을 거서 보내왔으니까요.

좋아하는 텔레방송:

사회 러시아 텔레방송 "즈지 메냐"(나를 기다려)를 보기 좋아합니다. 내 자체가 친척들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쥬. 제일 잘된 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러시아 필름은 "봄의 17번째 순간"이고 한국영화는 "모래시계"인데 그것을 고국에 있을때 가장 재미있게 봤습니다.

존중히 여겨지는 남자·여자의 가치점:

남자들은 정직하고 겸손하여야 하며 이상세대들 특히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도와나설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며 여자들은 매력있고 마음씨 곱고 상냥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런 가치점의 소유자에게 존경심이 갑니다.

한인들의 나쁜점과 좋은점:

저의 생각에는 우리 이상세대들이 자기 의견을 털어놓고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을 나쁜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난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고 있쥬. 우리 한인들의 난문제들을 올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상세대들의 도움이 기필코 필요합니다.

주내에 한인사회단체들이 많쥬. 그들 모두가 주 한인회 산하에 들어가 한마음·한뜻으로 사업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단체영성자들이 우리 동포 어르신들을 위해 생각하면서 도와주어야 하며 우리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우리 한인들은 너그럽고 동정심 많은 그런 좋은 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 방면에서 사업을 잘 해나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가한 시간이 나지면:

산을 산책하기 좋아합니다.

연금생활 나가게 되면:

연금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일이 가장 만족감을 안겨주고 있으니까 끝까지 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각하께

재 러시아 사할린주 한인이중징용 광부유가족회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대한민국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재 러시아 사할린주 한인이중징용 광부유가족회는 아래와 같은 진실을 대통령 각하께 보고하여 지원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만명의 사할린 한인들이 1939~1945년 기간에 걸쳐 일본 정부의 전쟁수행을 위한 정책으로 한국에서 강제연행되어 사할린섬에서 오늘날까지 머물러 있으며 고국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8~9월에 일본 패전 일년을 앞두고 일본 정부는 사할린섬 서북해안에 있던 12개 탄광을 임시로 폐광, 휴광, 보광등으로 방치해 두고 전체 탄부들을 일본 내지 대공업지대인 큐슈 후쿠오카현, 나가사키현에 있는 9개 탄광으로 또 이바라기현 조반 탄광으로 강제 징용연행하였습니다. 이때 우리 한인동포 3,192명이 이중징용연행에 동원되었음을 문서가 증명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부양자 없이 또 젊은 부녀들은 남편없이,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 형님들이 없는 버림받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이들은 해방을 자기 다른 나라에서 맞게 되었습니다. 즉 남편들, 아버지들, 형님들은 일본내지 탄광에서 가족들은 현 사할린에서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분류의 이산가족들이 발생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일본정부는 전후 자기 국민들만 31만명 이상을 귀국시켰으며 이중징용된 사람들은 귀국시키지 않았으며 이들의 가족, 광부들에 대해서는 오늘 날까지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유가족에 대하여서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으며 영원히 이 사실을 역사에서 제거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녀들은 남편을 일본정부에 영원히 빼앗기고 자녀들은 부형들을 빼앗기고 일평생을 남편이 있어도 과부생활을 하여야만 되었고, 아이들은 아버지없는 호로자식의 신세로 되어 아버지의 성조차 모른채, 의부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만들어 낸 이산가족입니다. 그러나 일본측은 전후 57년이 경과한 오늘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침묵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사할린 한인 사회단체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 앞에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자연스럽게 사할린의 남부지역에서만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비롯한 코르사코브, 홀모스크, 빅코보지역에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상기 문제는 영원히 사할린 한인 역사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 정부 또 전세계의 사회계에 빨리 알리고, 이 이중징용 광부들의 생사, 또 행방, 운명을 판명하여 유가족들에게 알리려는 목적과 동시에 일본정부에 징용 가족들의 보상을 청구할 것을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건에는 일본정부가 12개 탄광의 소유권을 비롯하여 기자채까지 매수하고 우선적으로 인력보강을 위하여 일본내지로 노동자들만 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은 정부가 보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징용가족 보호회가 지원해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전하고난 후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일체 함구하고 있는 것이 이상합니다. 또 다른 사실은 현재에 와서 일본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이 진상의 일부가 세상에 나타났으며, 또 사할린 우리 동포들속에서도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으며 2001년에 처음으로 사단법인 재러시아 사할린주 한인이중징용광부유가족회가 결성되었으며 대표단의 성원 안명복 회장(전회장), 서정길 부회장, 정태식 사무장으로 대표단을 이루어 공식 방일을 실행하였습니다. 방일은 일본 외무성, 일본적십자사, 그리고 당시 관련기업인 현 미쓰이 광산 주식회사, 미쓰비시 마텔리알 주식회사 그리고 코-강 주식회사 책임자들과 면담을 가지고 상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였으며 일본 외무성, 일본기업들은 이 사실을 듣는 것이 처음이기에 앞으로 연구하여 수개월 후에 회답을 줄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미쓰이, 미쓰비시, 코-강 회사에서는 회답을 받았는데 전후 일본탄광들이 없어져 자료가 남아 있지않아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외무성과 일본적십자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강제징용 당시 광부들은 노동수용소와 다름없는 징용지로 배치되어, 가족으로부터 떨어진 일본의 가장 위험한 공업지대에서 중노동인 탄부생활을 하였으며 전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날까지도 생사는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또 이곳에 남겨둔 가족들은 남다른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왜 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회는 우리 조국의 유력한 정부기관이 일본 정부에 이 문제를 조사하고 그 유가족들의 처지를 판단하고 또 징용광부들의 생사를 비롯한 행방, 기타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공식적으로 제기해서 3,192명의 운명과 행방을 판명하고 또한 그들의 유가족들에 대하여서도 배려하여주도록 촉구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대통령께 요청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각하!

우리는 너무나도 암담하고 버림받은 사람들로써 더는 참을 수 없어서 금년 2월에 우리들의 단체인 사단법인 재러시아 사할린주 한인이중징용광부유가족회를 결성하고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남편, 형님들의 생사를 확인하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일본정부와 관련 기업체들을 상대로 투쟁을 벌이며 또한 1944년 8~9월의 사할린 우글레르스크(구에스토루) 이북 12개 탄광에서 징용되어 일본 내지로 배치된 3,000여명 이상의 광부들의 운명을 해명 공개할 것을 강력히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당시 이 탄부들은 「후방 생산전사」라는 미명아래 가족을 사할린에 두고 강제 연행되어 중노동 수용소나 다름없는 탄광에서 종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을 면담할 때 처음 듣는 것이기에 연구해본 다음에 이 문제를 꼭 선점으로 내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2개월 반이 지났으나 아무런 회답이 없는 실정입니다. 일본적십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적십자사에 통보하여 조사를 진행하여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볼 때 당시 징용연행이 실행되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를 상대로 싸우기에는 저희들의 힘이 너무나 미약하므로 전세계에 진상을 널리 알리고 엄밀한 조사를 할 것을 일본정부, 일본적십자사, 그리고 한국정부, 한국적십자사 및 국제적십자사의 지원을 받아 우리 회가 이미 조사한 문서에 기초하여 진상을 밝혀줄 것을 각하께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힘은 미약합니다. 물론 사할린 주 한인노인회를 비롯하여 기타 단체들의 성원도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 :

1. 1944년 8월 11일 일본 정부각의 결정 (이상 화태 광부들에게 관한것)
2. 당시 화태 및 일본 큐슈광업소의 회사들
3. 광부들의 가족들에 대한 조사 자료: 현재까지 300명 생존함.
4. 유가족들의 진술서
5. 현재에도 사할린에는 (토-로, 타이헤이 탄광)등 일부 탄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일본정부에 이 사실을 전달하여 주시고 조속히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회는 우선적으로 이 유가족들에게 적으나마 물질적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들, 병자, 신체장애자들과 생활곤란에 있는 가정들 도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편없이, 아버지없이 일평생을 살면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을 위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일본 정부는 이들을 잊고 있는지요. 전후 57년 그리고 인류는 21세기의 첫 문전에 들어와 있지만은 이 3,000명 이상의 광부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하여 말 한마디 없다는 것은 우리 문명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공명정당하게 해결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정부와 대한민국적십자사가 지지성원하여 주시고, 일본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세우도록 외교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크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재 러 사할린주 한인이중징용탄부 유가족회
 기타 회원일동
 회 장 서 정길
 사무장 정 태식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에 드리는 편지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동포, 형제, 자매, 대한민국 정부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재 사할린 한인들-이중징용 광부들과 그 유가족들의 58년간 반세기 이상의 피맺힌 한과 망향의 슬픔속에 남편, 아버지, 형제들을 영원히 일본정부에 빼앗기고 이제는 나이들고 병들어 쓰러져가며 절규하는 저 처절한 동포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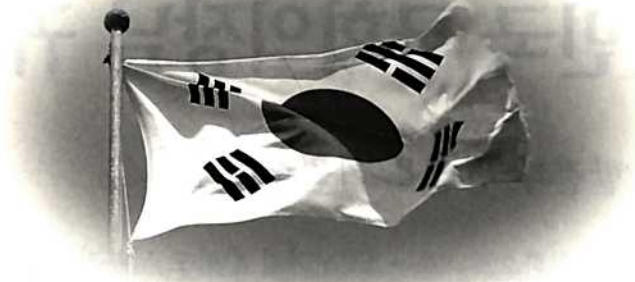
여러분들은 이 사할린 이중징용 탄부들과 그 유가족들의 지난 생활역사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말기인 1944년 8~9월에 3,000여명 이상의 한인 광부들을 사할린 서북해안 탄광에서 일본의 대군수공업지대인 큐슈 나가사키현, 후쿠오카현의 탄광과 일본 수도 도쿄에서 멀지 않은 조반탄전의 야마이치, 세끼모토 탄광으로 재징용, 연행하여 배치시켜 중노동에 종사시켰습니다.

사할린에는 생활력이 없는 늙은 부모와 부녀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사실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지만 1944년 8~9월에 이 이중징용 광부들에 대하여서는 망각한 채 태평양전쟁 최후의 포성이 들린지 57년이란 적지않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생산전사"라는 미명아래 만세를 부르며 그리운 가족, 처자식들을 의지할 곳 없는 사할린에 남겨두고 미군의 폭격이 가장 심한 일본의 대군수공업지대로 연행된 3,000여명의 광부들과 그들의 유가족에 대하여 그 누구도 일언반구도 글도 쓰지 않고 그 사변을 사할린 한인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영원히 지우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련 붕괴 후 오늘날까지 사할린한인문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상기 광부들에 대하여서는 단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는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징용 광부들의 유가족들과 자손들이 사단법인사회단체를 결성하여 일본정부와 관련기업들 상대로 이 광부들의 운명과 생사, 행방을 비롯한 유가족, 자손들의 금후문제와 근 60여년간에 걸친 물심양면의 손해보상을 청구할 것을 저희들의 목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책에 실린 문건과 자료는 "징용가족 보호회"가 부담한다고 하셨습니다.

해방이 되어 57년이 지나도록 조국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토록 기다리던 가족들 품으로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였으며, 일생을 남편이 있어도 과부로,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아들이 되었으며, 아버지의 성도 제대로 모르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도 그들 유가족들은 일본정부에 항의하고 있으나 그 누구도 그들의 절규에 귀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2001년 7월에 300명의 회원을 가진 사단법인 사할린주 한인 이중징용 유가족회를 결성하고 공식적으로 일본정부와 일본적십자사, 그리고 관련기업인 미쓰이 광산 주식회사, 미쓰비시 마테리얼 주식회사, 코-강(鋼管)주식회사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회사측과 정부, 그리고 일본적십자사측은 이상의 서술한 이중징용광부 및 가족이산은 처음 듣는 것이라면서 우선적으로 연구한 후에 대책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측에서는 오늘날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상기 3개사에서는 비슷한 회답이 왔는데 당시의 문건이 전후에 남아있지 않으며 또 일본탄광들이 폐광한지 3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자료를 찾지못하였으며 탄광들이 전후에 해외재산으로 없어졌거나 일본 국회 도서관에는 문서와 명부가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회사측은 그곳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미쓰이 회사는 전쟁중에 본사가 도쿄의 니혼바시구에 있었는데 그 어디로 소개했다는 소문은 들어보았으나 자세한 것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 사회단체의 힘은 미약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이 3,000여명의 노동수용자와 같이 징용연행하여 지하 막장에서 중노동에 종사하던 탄부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이곳 사할린에 남아 있는 유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와 적십자사 그리고 유가족위원회가 참가한 가운데 이 조사를 조속히 진행되도록 한국 정부가 외교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은 우리 조국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부는 그런 능력과 재능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같은 동포로서 인정하고 협력하여 줄 의지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디 망각의 역사속에 묻힌 채 오욕의 일생을 살아온 이 가련한 운명을 가진 우리에게 광명을 안겨주십시오. 당시 1944년 8~9월에 10~14세의 어린 소년 소녀들이 60~80대의 노년을 맞았으니 하루속히 일본측에 상기 사실을 통보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를 명확히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깊이 머릿속여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늙고 병든 몸들이 하루하루 쓰러져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서둘러 주실 것을 재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회답은 우편 혹은 FAX.(4242) 72-56-34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2001년 10월 4일

재 사할린주 한인이중징용 광부유가족회
회원일동

회 장 서 정길

사무장 정 태식

대한민국 국회의장님 귀하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일본은 자기들의 전쟁수행 정책의 일환으로 1939~1945년까지 한반도 남부지역의 수만의 우리 동포 청장년들을 사할린 탄광으로 강제연행하여 중노동에 종사시킨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수만의 사할린 한인 광부들 중에서 3,000여명의 광부들이 1944년 8~9월에 일본의 가장 큰 공업지대인 큐슈와 도쿄 부근에 있었던 조반 탄전등의 탄광들에 재징용(이중징용)으로 연행배치되어 그곳 탄광들에서 노동수용소와 다름없는 중노동에 종사했다는 사실은 일본 정부도 잘 모르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중징용에 의해 연행된 탄부들에 대한 말은 그 누구도 입밖엔 내지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관련 기업측도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의 진실은 현재 일본의 학자들이 찾는 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1944년 8~9월에 일본내지로 강제연행되어간 광부들의 가족들이 이 사할린에 남아 있게 되었는데 전후 57년이 경과하여도 이 징용광부들 그리고 이 사할린 동토에 남겨진 가족, 처자들의 운명에 대하여서는 알아보려고도 하지않고 있으므로 금년 2001년 7월에 사회단체인 이중징용탄부유가족회가 공식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자기들의 목적과 강령을 내세우고 일본정부와 관련기업을 상대로 3,000명의 이중징용광부들의 행방, 생사, 운명을 확인하여 유가족들에게 전달하며 또 근 60년간의 물심양면의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 유가족회대표가 공식방일하여 일본정부, 일본적십자사를 비롯하여 미쓰이, 미쓰비시마테리알, 코-캉 주식회사와 면담을 가지고 상기 광부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에서 회답이 왔는데 모두가 비슷비슷한 회답뿐이었습니다. 전후 일본탄광들이 닫히고 3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또 전쟁중 문서가 소멸되었거나 혹은 패전으로 말미암아 광산재산이 모두 해외재산으로 없어졌기에 문서가 없다는 식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정부 외무성과 또 일본적십자사측은 현시점까지 회답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문서를 신용치 않는다면 일본측이 빠른 시일내에 이 사실을 재조사하여 3,000명의 탄부들의 행방 및 생사를 확인하여 사할린에 남겨둔 유가족들에게 전달하고 또 근 60년간에 걸친 그들의 물심양면의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1944년 8월 11일 日本政府(일본정부) 閣議(각의)결정에도 명백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극비문서가 현재 유가족회에 입수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와 기타 증언, 실증, 생존하는 유가족들의 진술서등을 첨부하여 보내니 급속히 일본 정부에 통보하고 근 60년간의 피맺힌 한과 망향의 슬픔속에서 신음하는 또 하나의 이산가족들의 원한의 울부짖음을 헤아려 달라고 일본정부에 외교권을 행사하여 조속한 해답을 해주도록 하여주시시오.

우리는 우리의 조국이 오늘날 그런 외교권을 행사할 충분한 능력을 소지하고 있으며 여유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동포애로써 품안에 안아주려는 의지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디 망각의 역사속에 묻힌채 오욕의 일생을 살아온 이 이중징용광부, 유가족들에게 광명을 안겨주시시오. 우리들의 여생은 얼마남지 않았습니니다. 10~14살이었던 소년, 소녀가 이제 60~80길에 들어섰습니니다. 우리들의 생존하는 숫자는 하루하루 줄어 들어갑니다.

남편을 영원히 일본정부에 빼앗기고 또 아버지, 형님들을 영원히 빼앗긴 자녀들은 얼마남지도 않았으며 그 회원도 고작 300명입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신세로 힘은 비록 미약하지만은 거대한 경제대국 일본정부와 투쟁하여 공명정대한 해결을 받을 것을 주장합니다.

3,000명의 후방전사들의 명예를 씻우고 만세를 부르며 일본 최남단섬 큐슈에 징용된 탄부들의 운명과 생사를 확인하고 또 그들의 유가족들을 지원할 의무가 일본 정부에 있다고 문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문서, 자료들을 첨부하여 우리 대한민국 최고지도자들에게 제출하오니 이것을 기초로 우리들의 운동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회답은 서한, 우편이나 FAX로 전달하여 주시면 열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RUSSIA 693000 SAKHALINSKAYA OBLASCH
YUZHNO-SAKHALINSK
Str. N^o51 KARL MARX
TEL : (4242) 72-56-34
FAX : 7-509-85-6-20-42

在 사할린주 한인 이중징용광부 유가족회
회원일동
회장 서정길
사무장 정태식

대한민국 적십자사 총재님 귀하

존경하는 총재님, 귀사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재러 사할린주 한인이중징용광부유가족회는 귀하에게 이 서한을 송달하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금년 2001년 7월에 "이중징용광부유가족회"를 결성하였습니다. 현재 회원은 300명인데 60~80대의 노인들입니다. 우리들의 남편, 부형들은 강제 징용되어 광부로서 일하다가 1944년 8~9월에 현 사할린 우글레고르스크 이북에 있는 탄광이 닫히면서 광부들을 일본내 큐슈나 이바라기현 탄광으로 징용연행되어간 탄부들의 자녀들과 유가족들입니다. 전후 57년이란 적지않는 세월이 지나고 인류는 또 새로운 세기, 21세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계에서는 많은 난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근 60년전에 일본정부의 각의 결정으로 사할린에서 재징용(이중징용)으로 강제연행된 3,200명의 한인광부들에 대하여서는 일본정부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또 사할린 한인단체에서도 주목을 돌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기 유가족회가 탄생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지지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회의 목적은 태평양 전쟁 말기에 현재 사할린섬 서북해안에서 3,200명의 한인 광부들이 일본의 대공업지대의 하나인 큐슈의 나가사키현, 후쿠오카현 또 도쿄에서 멀지않는 이바라기현의 탄광으로 징용연행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현지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형의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전후 57년이 경과하였어도 그들 탄부들의 생사확인을 비롯한 행방여하 또 사할린에 남겨진 수백명의 처자들과 가족들에 대하여서는 일본정부를 비롯하여 그 누구도 이들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말하지 않고 있으며 글도 쓰지 않고 이 사실을 영원히 사할린 한인사회의 역사에서 매장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상을 해명하고 만천하에 공개하여 공명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상호간의 생사, 행방을 확인하고 일본 정부와 관련기업에 이 사실은 알리고 또 이에 대한 적법한 대책을 세워 생존자들의 운명을 확인하는데 이 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상기 징용광부들의 유가족회는 결성 첫 단계에 회의 지도부 안명복 전 회장, 서정길 현회장, 정태식 사무장들의 공식 일본 방문을 실천하였습니다. 2001년 7월 9~14일 기간에 일본외무성, 일본적십자사 그리고 관련기업체 三井광산, 三菱마테리알, 鋼管주식회사들의 관계 책임자들과 면담을 가졌으며 그 결과는 일본측은 상기징용 광부들과 유가족들이 사할린에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듣는 것이라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연구하고 문건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三井, 三菱마테리알, 鋼管주식회사에서 보내 온 회답의 내용은 어느 것이나 동등한 내용인데 전후 많은 시간이 지났으며 또한 현재 회사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존재치 않기에 책임을 추궁해도 대응치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스럽고 유감스러운 것은 일본 외무성 그리고 일본적십자사는 오늘날까지 아무런 회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는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나마 앞으로 일본과 같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과 싸워야한다는 것을 깨닫고 한국정부 특히 한국적십자사가 직접 이 문제를 일본적십자사를 통하여 일본 정부가 조사를 실시하여 진상을 해명하고 대책을 세워주도록 촉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본회는 일본 학자들의 연구자료의 일부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1944년 8월 11일의 각의결정(閣議決定)이 있습니다. 문서를 복사,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이 심각한 문제를 풀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 외에 우리는 공문서 보관소에서 당시 사할린에서 징용된 탄산들의 회사이름 지명이 확인된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 문서들 중 일부는 당시의 극비문서들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이 심각하고 절박하며 또 60년을 내려오면서 남편, 아버지, 형님들의 생사여부를 알려고 애쓰는 동포들의 소원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 본회의 첫 다짐이며 다음으로는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청구 문제입니다. 이상의 일본정부 각의결정에는 일본정부가 가족들에 대한 보호책도 기술되어 있으니 한국정부와 적십자사는 깊이 연구하시고 단기간내로 이상의 문제를 일본정부와 일국적십자사에 제기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 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당시 1944년 8~9월에 10~14세의 어린 소년과 소녀들이 이제 70~80세의 노년을 한스럽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이 광부들에게 "후방산업 전사"라는 미명을 씌우고 나라를 위하여 석탄을 열심히 캐내야 된다고 격려·고무하였으며 가족들은 정부와 국가가 책임을 지니 안심하고 떠나라고 선전하였습니다.

또 남은 가족들에게 나라를 위하여 떠나는 생산 전사들에게 눈물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만세를 부르며 전송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57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나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입밖에도 내지 않고 있으며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조사하여 3,000여명의 광부들의 생사, 행방을 확인하여 유가족들에 전하여 주는 것이 적십자사들의 기본 목적 중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일본외무성과 일본적십자사측이 우리와의 면담에서 약속한 언약을 오늘 이 시각까지 지키지않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귀사의 성의있는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신은 우편이나 FAX로 전달하여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 한국적십자사측이 직접 상기 문제의 조사를 위하여 본회에 연락을 취해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1944년 8월 11일자 각의결정문 전문
2. 1944년도 화태(사할린)탄광분포도
3. 광업소 명칭
4. 남단 (일영토 화태) 사할린 1944년 8~9월 징용지
5. 일본내지로 징용간 현명 및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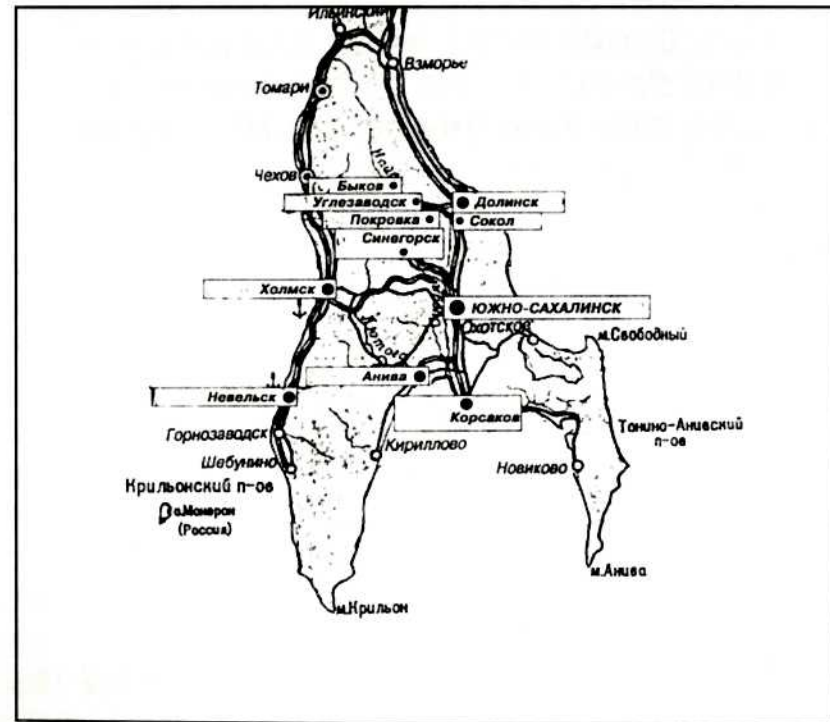
이 문제는 우리 아버지, 형님, 남편들이 전시 노동수용소와 다름없는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또 다시 가족들을 이 사할린에 남겨두고 일본으로 강제 연행되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이중징용"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아낌없는 지원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같은 내용의 서한을 대한민국 대통령 각하께도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0월 1일
유가족회 회장 서정길
사무장 정태식

일본 적십자사 국제 구제국 국장 카부라기 신이치 귀하

일본 정부는 1989~1990년間に 당시 한려 수교가 없었을 때 사할린 잔류 조선인들의 전후 문제처리를 위하여 수차례 걸쳐서 '사할린 한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는 다만 현 유즈노-사할린스크 근교도시 들인 코르사코브, 홀모스크, 뷔코브, 시네고르스크 및 돌린스크, 네웰리스크, 고르노자위드스크등에서만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조사에 근거하여 일본정부가 사할린·조선인들의 영주귀국, 모국방문에 약간의 재정원조를 주고는 있으나 전쟁에서 입은 피해와 전후 60년 가까운 시기에 걸친 유가족의 정신적·물적 고통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는 사죄조차 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할린한인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한인광부들의 2/3가 현 우글레고르스크 지방에 14개 탄광에서 1943년 전에 일하였었다. 문건이 증명하고 있다.

대소 총합 33개 탄광중에서 가장 질이 양호하고 열량이 높은 석탄이 현우글레고르스크 탄전이었다. 그러므로 이 탄전 석탄을 선박으로 일본내지 군수공장으로 실어갔으며 많은 노동자들은 징용하였다. 그런데 왜 일본정부는 이지방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또 국회는 1944년 8월 11일 내각 결의에 의하여 9,000명의 탄부들을 일본 내지로 징용배치했다. 그 중 3,200여명의 한인광부들이 있었는데 오늘날까지 생사, 행방, 안부를 모르고 있는 현황이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왜 이 문제를 해명하여 달라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지요! 아래 지도는 일본정부가 사할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고 그에 기초하여 현재 한일 적십자사 공동사업체에 위탁하여 약간의 문제해결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는 다만 일정한 형식뿐이라고 보아지며 한인 징용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지방을 재조사하여 그들에 대한 공명정대한 보상과 유가족들에게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중징용광부 유가족들은 일본정부와 그들의 "징용가족 보호회"가 책임을 지고 그들의 생활을 보상한다고 한 문건이 현재도 효력이 있다고 본다. 이 문건은 1944년 8월 11일 내각 결의이며 일본국 석탄통제회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할린주 남부지방과 동해안에서는 이중징용광부가 없었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따라서 본 회의 요청은 사할린주의 서북부지방을 재조사하는 것이다.

사할린주 한인이중징용광부
유가족회
회장 서정길
서기장 정태식

일본 적십자사 사무국 국제부장 카부라기 신이치 씨의 회답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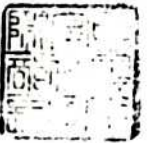
国教第 103号
平成 13年 11月 21日

국구 제 103호
평성 13년 11월 21일

ロシア・サハリン州韓人二重徴用鉱夫遺家族会
会長 徐正吉 様

러시아, 사할린 한인 이중징용 광부 유가족회
회장 서정길 귀하

日本赤十字社 事業局
国際部長 鍋木 伸



ロシア・サハリン州韓人二重徴用鉱夫の安否調査要請について

標記について貴職よりの2001年7月10日及び10月1日付の書簡を受領いたしました。

赤十字はジュネーブ条約等にもとづき、人道的支援の立場から、紛争や災害で離れ離れになった方々に対し、家族の依頼により、安否調査を実施しております。

しかしながら、ロシア・サハリン州韓人二重徴用鉱夫に関する調査については、一連の戦後処理問題のひとつであり、また、調査に必要とされる情報はすべて日本政府にあるため、日本赤十字社が、現段階ではこの問題に直接関与することの実質的な意味があるとは考えられません。何卒、ご理解の程、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日本赤十字社は、韓国とソビエト連邦との間に正式の国交がなかった1989年に日本政府から要請を受け、大韓赤十字社と「サハリン韓国人支援共同事業体」を発足させ、それ以来、日本政府からの委託事業として母国訪問事業、永住帰国支援事業、サハリン残留者支援事業を順次実施してまいりました。

今後とも、大韓赤十字社、在サハリン韓人団体と連絡をとりつつ、本事業の進展に向けて努力をしてまいります所存です。

▶ 이상은 본회의 요청에 대한 회답으로 일본적십자사가 통보한 회답편지입니다. 우리는 이 회답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상기 회답은 본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한번도 연구 조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사회 단체 대표들,
존경하는 일본정부, 일본적십자사 대표 여러분들,
존경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적십자사 대표 여러분들!**

나는 러시아 사할린주 한인 이중징용광부의 아들이며 현재 이중징용광부 유가족회 회장 서정길입니다. 나는 사할린 한인의 한사람으로서 사할린 한인 강제징용 연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심각하고 긴급하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이중징용광부들의 운명과 현재 사할린에 잔류중인 그들의 유가족 및 후손들의 전후책임 을 누가 져야 하느냐하는 문제를 일본정부대표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중징용이란 한국에서 강제연행되어 사할린 탄광으로 징용되었던 탄부들이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8월 11일 일본정부의 각의 결정에 따라 재징용되어 사할린에서 다시 일본내지의 대공업지대인 큐슈, 도쿄에서 멀지 않는 이바라기현 탄광으로 징용연행됨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문서 「일본 도쿄 석탄 통제회 문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근 1만명의 탄부들이 징용되었는데 그 중 한인광부가 3,190명이 재징용연행되었습니다. 그 중 145명은 이바라기현으로 나머지 3,000명 이상은 큐슈탄광에 징용배치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가족과 처자들을 사할린에 남겨두고 연행되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후에는 새로운 분류의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년을 사할린 한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 또 적십자사는 사할린을 방문할 때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 부근만 조사대상으로 하고 한인인구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우글레고르스크 지역은 조사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1944년에 전 사할린에서 가동하던 탄광 26개중 이 지역에서만 13개가 가동하고 있었다는 것만 해도 가장 많은 수의 강제연행노동자들이 이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강제징용노동력의 2/3가 탄광노동자라는 것을 볼 때(나가사와 시계부루 조선인 강제연행사 연구원)이 구역은 일차적 조사대상으로 되어야 마땅한 것이며 이중징용도 현 우글레고르스크 이북에 집결되어 있던 가장 큰 탄광 토오로 탄광을 비롯한 12개의 탄광을 달고 광부들을 일본내지 혹은 사할린 남부지역 탄광이나 비행장 기타 공사에 징용 명령으로 수송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들 징용자들과 유가족, 후손들에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일언반구의 말이나 글도 쓰지 않으며 영원히 이 심각한 문제를 제기치 않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1944년 "후방 생산전사"라는 미명하에 3,000명 이상의 우리 아버지, 형님, 그리고 젊은 여성들의 남편들이 징용연행되었으나 그들의 전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으며 생사 및 행방여부와 그리고 반세기 이상을 자기들의 남편, 아버지, 형님들의 소식도 모르고 신음하고 있는 분들의 한을 늦게나마 풀어줄 때가 되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침묵을 지키며 언제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이것은 자기들의 죄행을 은폐하거나 혹은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아지며 진실된 역사는 반드시 밝혀야겠습니다.

사할린주 이중징용광부 유가족회는 상기 징용광부들의 운명을 판명하고 우선적으로 60세 이상의 피해자들에게 물심양면의 보상을 해 줄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며 이 광부들과 사할린에 잔류하고 있는 유가족들간의 생사, 행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저희들의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정부, 일본적십자사 그리고 한국정부, 한국적십자사의 협력과 지원하에서 유가족회가 참석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 조사에 의하면 300명의 유가족이 있으며 1,500명 이상의 징용자들의 자손들이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유가족은 벌써 60~80대의 노년을 맞이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심각한 문제를 국제 적십자사의 협조를 받으면서 구제대책을 일본 정부가 조속히 세우도록 촉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중징용광부들은 전시 미군의 폭격이 가장 심한 사대 공업지대의 하나인 북 큐슈공업을 유지하기 위한 연료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노동 수용소와 다름없는 위험한 지역으로 징용 배치되었으며 이바라기탄전 또한 중부 일본 대공업지대의 연료를 공급하였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정부와 적십자사의 외교루트를 통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한평생 남편, 아버지, 형님들과 생이별을 한채 고통속에 살아온 가련한 유가족들을 구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정부는 이런 능력과 여유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민족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미약합니다. 너무도 약합니다. 반해서 일본정부와 같은 거대한 위력을 가진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우리 단체는 너무도 보잘 것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지지성원을 받아 일본정부가 반성하고 물심양면의 보상을 하루라도 속히 하도록 계속 각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현재 30~50달러의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60~80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늙고 병들어서 하나 둘씩 매일같이 죽어가는 현실입니다.

모두가 죽기전에 일본의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피해보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유가족회가 이미 조사한 문건을 재확인하여 과거청산을 깨끗이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니 한일 정상협정이니 또는 일본 국내법을 들먹이면서 "과거를 용서하고 이해하여 주시오"하는 방식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 협정, 조약, 용서와 이해라는 말로는 패인 골을 메우기에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만일에 반대로 일본인들이 우리같은 처지에 있었다고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의와 책임을 이행해야 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역사적으로도 풀지 못하던 많은 난제를 풀었으며 새로운 평화와 화합의 새 천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공명정대한 청산이 없이는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미루지 말고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밝은 미래, 즉 공존공영의 새 시대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공통적 이념이며 희망일 것입니다. 이 희망이 실현되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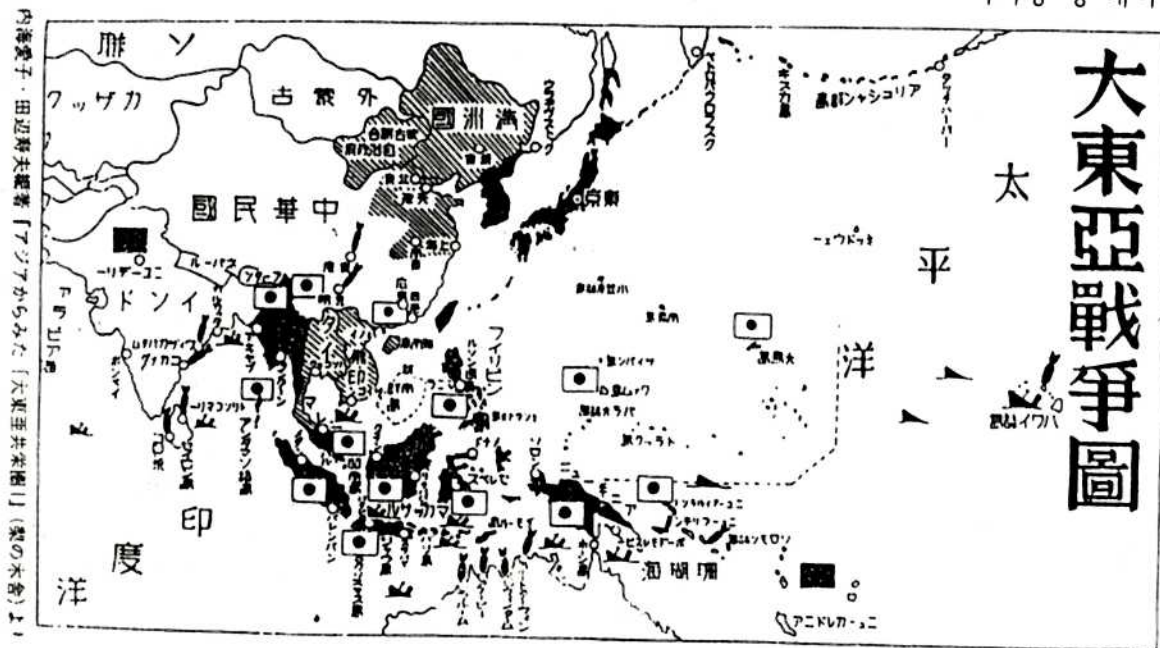
사할린주 한인 이중징용광부 유가족회

이중징용광부

이중징용이라 함은 한국에서 사할린으로 징용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본내지의 큐슈섬과 이바라기현에 있는 제탄광으로 재징용된 경우를 말한다. 사할린은 동해안 사할린과 서해안 사할린으로 구분되는데 동해안 사할린은 철도길이 있었기에 기차로 석탄을 운반할 수 있었으나 서북해안 사할린은 철도가 부설되지 않았기에 선편을 통해서 직접 일본본토로 탄을 운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1944년 일본본토가 미군의 제공, 제해권에 들어가게 되어서 사할린에서 생산하는 품질이 양호한 석탄을 더이상 배로 일본 본토에 운반해 가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주로 큰 탄광이 있었던 에스토루 (현 우글레고르스크)이북의 러일 국경 안베쓰까지에 존재하던 12개의 탄광들을 (사할린 서북해안) 모두 정리한다 하고 1944년 8월 11일 일본정부각의 결정에 따라 모두 폐광, 휴광 혹은 보광으로 두기로 하고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귀향시킨 것이 아니라 다시 일본내지로 징용하여 가서 중노동에 종사시켰다. 이들 광부들은 가족들을 사할린에 둔채 일본 최남단 섬인 큐슈와 도쿄주변에 있는 이바라기현 탄광으로 다시 징용되었다. (나가사와 시게루, 1986년 도쿄)

이 이중징용 광부들의 가족들은 가장, 남편, 부형들이 재징용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훨씬 심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이중징용된 광부들의 가족들 중에는 해방이 되어도 재회하지 못하고 생사조차 확인도 못한 채 이산가족으로 한평생을 살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상당수가 현재 사할린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사할린 이중징용 광부들과 그 유가족들의 현황이다. 현재 300명의 회원들이 망라된 이중징용 광부 유가족회가 사단법인으로 공식 사할린주 사법성에 등록되어 이중징용에 따른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이중징용광부들의 정확한 숫자조차 오늘 현재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그 진상 연구를 누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할린주 한인이중징용광부 유가족회
회장 서정길
서기장 정태식



▶대동아 전쟁도

▶ Anwa Maru는 최신 장비를 갖춘 연락선이며 일본 홋카이도 와카나이-사할린(구 카라후토)오도 마린간을 왕복 항행하였다.
1944년 8, 9월에는 사할린 이중징용광부들을 일본으로 운송하였다.



樺日航路の
奉天記念スタンプ

樺かして稚泊連絡船

本邦の
戦時中
の船舶
記念
スタンプ
の一例
として
紹介
する。

裡太転探勞務者職員受入数調

19.10.31

到着月日	船名	受入炭礦	供出炭礦	勞務者			職員	合計	家族	受入炭礦係員	出炭月日	受入炭礦出理人						
				内地	半島	計												
9.4	間宮丸	常盤(内郷) *(鹿島) 中郷	上塔路	199	-	199	8	207		2 1	9.4	4	警官2名 医者3名					
			*	50	-	50	3	53			*	2						
			*	100	-	100	5	105										
				365														
9.12	白竜丸	好間 小田 橋形 重内 山一 上田 関本	大平	145	-	145	8	153		2 2 1 2 2 2 2	9.13	2	医者1名 看護婦1名					
			興南	-	149	149	5	154			*	3						
			諸津	20	27	47	25	72			*	4						
			上塔路	43	-	43	6	49			*	1						
			豊畑	-	73	73	-	73			*	1						
			塔路	73	-	73	6	79			*	1						
			豊畑	-	72	72	-	72			*	1						
							652											
			9.15	間宮丸	高萩 山口	白鳥沢	171	-	171		3	174		1(女)	2 1	9.15	5	医者1、看護婦2名、警官2名
						名好 三福	130 50	- 23	130 73		11 9	141 82					*	
				397														
9.26	間宮丸	常盤 好間 隅田川 橋形 山一 関本	上塔路	63	-	63	20	83	216	1 1 2 1	9.27	4	医者1、 看護婦2、 警官2 労働者1名死亡					
			大平	95	-	95	8	103				*		2				
			塔路	52	-	52	5	57				*		2				
			大平	-	-	-	3	3				*		1				
			上塔路	51	-	51	3	54				*		2				
			諸津	87	-	87	9	96				*		2				
			上塔路	-	-	-	3	3				*		2				
			上塔路	-	-	-	3	3				*		2				
							553											
			9.27	白竜丸	常盤 勿来 赤井 田川 勿来 小田 上山田 高萩	豊畑	140	-			140	22		162	5	2 2 2 2	9.27	4
興南	-	-				-	4	4		*	2							
白鳥沢	-	-				-	1	1		*	1							
大平	138	-				138	6	144		*	1							
興南	87	-				87	4	91		*	1							
豊畑	116	-				116	10	126		*	1							
白鳥沢	-	-				-	1	1		*	1							
興南	-	-				-	1	1		*	1							
名好	-	-				-	5	5		*	1							
名好	10	-				10	-	10		*	1							
白鳥沢	3	-	3	5	8		*	1										
				553														
9.27	白竜丸(九州)	平山 高島 二瀬 唐津	白鳥沢	-	2	2	-	2			9.28							
			北小沢	2	-	2	-	2			*							
			名好	-	-	-	4	4			*							
				10														

▶ 위 표는 탄부 운송시에 경관이 동행한 강제 연행임을 입증하고 있다.

表10 南滿大朝鮮入炭礦夫の本土輸送計画表 (9月8日迄実績)

出港日	船名	転出炭礦	乗船朝鮮人数	到着港	入港日	到着数
8.25	亜庭	大平	136名	佐世保	8.26	佐世保
8.27	亜庭	北小沢	172	折尾	8.28	折尾
		大平	396名			
8.27	亜庭	上塔路	145	桂川	8.28	桂川
		西郷丹	248			
9.2	亜庭	西郷丹	130	江連	9.3	江連
		安別	134			
9.2	亜庭	白鳥沢	204	桂川	9.3	桂川
		名好	148			
9.6	亜庭	上塔路	87	米田	9.7	米田
		北小沢	196			
9.8	亜庭	塔路	1	佐世保	9.9	佐世保
		塔路	66			
9.9	白龍	興南	148	平	9.13	平
		豊畑	72			
9.9	白龍	豊畑	72	川	9.13	川
		諸津	27			
9.12	間宮	三福	22	藤原	9.16	藤原
		大平	67			
9.12	亜庭	上塔路	49	大牟田	9.13	大牟田
		塔路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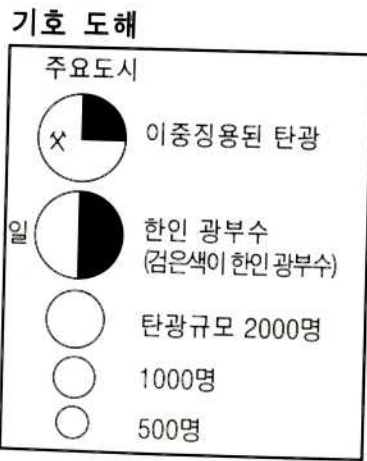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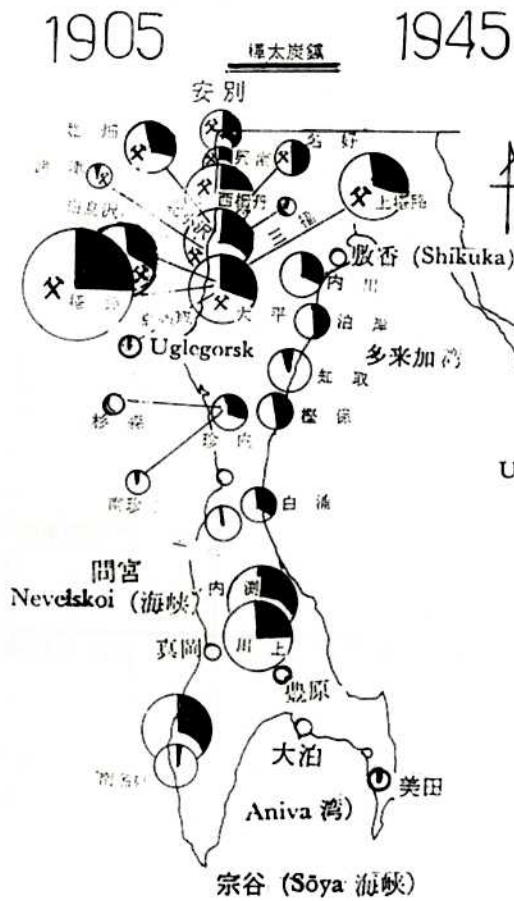
出所 表7に同じ.

▶ 이 표는 1944년 일본 정부 각의의 결정에 따라 사할린 한인 광부들을 일본 내지 류슈와 이마리기현 등으로 재정용하여간 계획표이며 주로 아나와(亞庭) 마루가 실어 날랐음을 보여준다.

最近二於ケル樺太各炭礦別勞務者使用狀況 昭和15年6月末現在

支庁別	鮮人数	紛争議發生件数
豊原	9,463	5
真岡	2,356	6
敷香	7,792	6
恵須取	13,295	9
計	32,906	26

備考 犯罪状況及紛争件数ハ十八年度分トス



炭礦名	半島人使用数			
	坑内	坑外	其他	計
△ 安別	-	1	-	1
興南	87	2	-	89
北栄	35	67	-	102
△ 木原立岩	34	-	-	34
△ 西欄丹	29	41	-	70
豊畑	161	2	1	164
増田名好	90	44	-	134
北小澤	172	1	3	176
名好三福無煙	14	2	-	16
諸津無煙	8	64	-	72
千結	50	71	-	121
○ 白鳥澤	-	-	-	-
△ 塔路	403	12	21	436
△ 上塔路	30	111	-	141
大平	585	23	2	610
○ Uglegorsk 恵須取	103	122	5	230
珍内	156	33	3	192
△ 南珍内	172	43	-	215
三浜	-	-	-	-
△ 小田洲	64	54	-	118
大栄	12	-	37	49
鷓巢	14	-	-	14
野田	17	9	-	26
内幌	272	15	-	287
△ 内川	20	36	-	56
泊岸	-	228	-	228
知取	39	6	-	45
樺保	87	21	8	116
白浦	89	26	2	117
辺計礼	13	8	-	21
△ 川上	92	22	-	114
内湖	2	-	-	2
美田	22	148	-	170
合計	2,872	1,212	82	4,166

備考 △ハ五日 ○ハ三日現在ナリ

▶ 카라후도청 행정문서, 탄광별 노무자 사용 상황

樺太庁行政文書

1944년 8월 11일 각의 결정에 대한 징용계획 자료
在サハリン州 (旧樺太) 韓人二重徵用必夫遺家族會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дважды принудительно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шахтеров»
«Public organization of twice forcibly mobilized Korean miners' families»

Russia 693000
Yuzhno-Sakhalinsk, Karla Morxan51 Room210 Tel(4242)72-56-34
Fax 50985-6-20-42

表9 再連行朝鮮人の受入炭礦別計画数

転出炭礦 (会社)	朝鮮人数	地区
上塔路 (釧路工業)	180名 → 嘉穂 (嘉穂炭業)	九州
白鳥沢 (樺太炭業)	315 → 平山 (明治炭業)	九州
諸津 (諸津炭業)	50 → 上田 (上田長一)	常磐
三福 (佐竹喜一郎)	20 → 上田 (上田長一)	常磐
名好 (南樺太炭業)	215 → 目尾 (古河炭業)	九州
豊畑 (豊畑炭礦)	70 → 関本 (関本炭礦)	常磐
豊畑 (豊畑炭礦)	70 → 山一 (山一炭礦)	常磐
興南 (東亞炭業)	130 → 小田 (鳳城炭礦)	常磐
北小沢 (南樺太石炭鉄道)	410 → 高島 (三菱炭業)	九州
西欄丹 (三井鉱山)	370 → 山野 (三井鉱山)	九州
安別 (日鉄炭業)	130 → 二瀬 (日鉄炭業)	九州
塔路 (南樺太石炭鉄道)	520 → 崎戸 (三菱炭業)	九州
大平 (樺太炭業)	130 → 大島 (大島炭礦)	九州
大平 (樺太炭業)	390 → 高松 (日本炭業)	九州
計	3,000名	

出所 表7に同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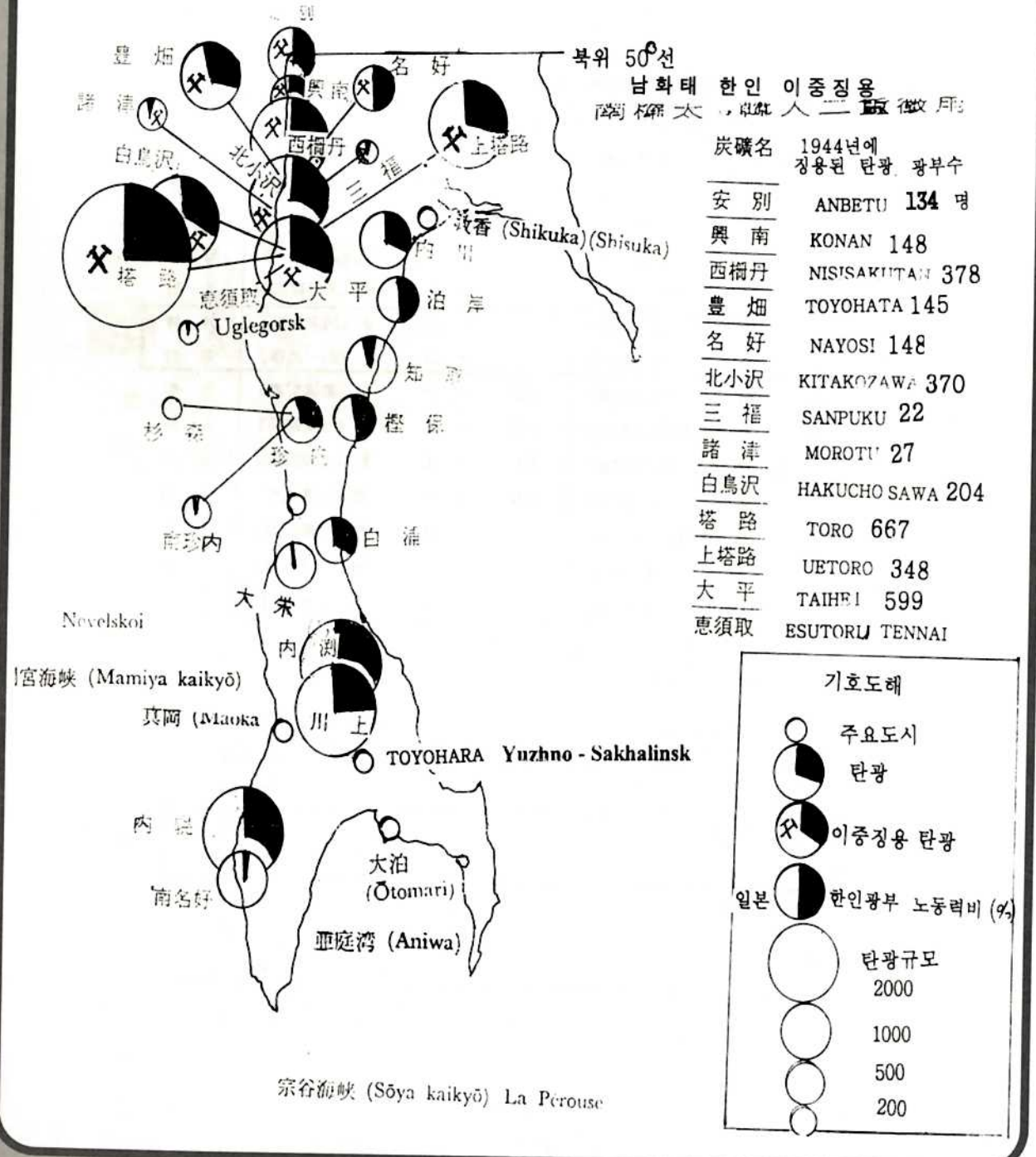
表11 常駐炭田の再連行朝鮮人受入数 (1944年10月31日調べ)

入山日	受入炭礦	朝鮮人炭礦夫	家族	転出炭礦
9.14	小田	149名		興南
9.14	関本	72		豊畑
9.14	山一	73		豊畑
9.14	本節形	27		諸津
9.15	山口	22		三福
9.20	小田		125名	興南
計		343	125	

出所 表7に同じ。

▶ 이것은 고문서에서 얻은 자료임. 일본 석탄 통제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당시에 징용 배치된 일본내지 탄광과 사할린 징용지 탄광 그리고 징용 광부인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많은 광부들이 징용배치되었다.

日本名「樺太炭鑛」



▶ 2002년 전 상주 편집
정 태식 작성

樺太炭鑛別出炭高

炭鑛名	出炭高				貯炭		18年6月
	15年	16年	17年	18年	坑所	港頭	計
安別	161496	152842	25487	64664	-	18650	18650
興南	76935	97255	52393	66969	18234	2408	20642
西樺丹	237038	351701	342851	349173	18650	386148	404798
豊畑	221171	197908	103084	120997	42520	58414	100934
名好	109404	109246	94385	85913	40328	21353	61681
北小沢	534300	573000	383700	410000	6810	284346	291156
三福	10200	14835	17210	23968	25598	3438	29036
諸津	135474	4076	36917	29891	24903	16934	41837
白鳥沢	1769691	274097	178070	130701	91852	175123	266975
塔路	1108700	1045450	800350	785800	94689	375655	470344
上塔路	425743	485742	208693	313852	48543	152156	200699
大平	1003195	914468	666970	643520	24249	408366	432615
恵須取	139252	37606	99003	29935	-	33652	33652
杉森	2821	8843	14703	25255	13970	-	13970
珍内	143912	125**4	94750	89370	7072	54799	61871
南珍内	112260	125300	52991	41658	-	20714	20714
大栄	116857	119763	117815	115901	59561	-	59561
内幌	314360	353400	391200	395300	19887	54	20041
南名好	-	17166	17**4	72581	27489	64967	92456
内川	120740	129400	131920	119360	11211	-	11211
泊岸	143676	215062	190913	155858	-	49614	49614
知取	150102	145024	108769	109081	26548	-	26548
樺保	91322	115852	96305	83768	9640	28209	37849
白浦	56613	71573	63496	47988	6404	12306	18810
内渊	55338	56412	26747	14751	9049	-	9049
川上	334849	391561	387084	392049	11850	2830	14680
計	6012747	6169406	4708130	4854763	639177	2170196	2809373

(注) 合計数のあわないものは原資料のままとした。不明な数字は*で示した。

▶ 화태 탄광별 생산량을 나타냄

樺太各炭鑛別坑夫轉換可能數

炭鑛名	轉換可能數			所要數	轉換不能數	計	備考
	坑内夫	坑外夫	計				
塔路	930	680	1610	320	220	2150	保坑
西樺丹	500	370	870	60	106	1036	休止但保坑
安別	210	150	360	-	38	398	休止
北小沢	740	380	1120	-	120	1240	〃
興南	115	105	220	-	26	246	廢止
豊畑	205	205	410	-	46	456	〃
名好	210	160	370	-	44	414	〃
三福	60	30	90	-	12	102	〃
諸津	30	110	140	-	14	154	〃
白鳥沢	320	200	520	-	62	582	〃
上塔路	400	370	770	-	85	855	〃
大平	730	260	990	200	135	1325	保坑
計	4450	3020	7470	580	908	8958	

▶ 화태 탄광별 광부 전환 가능수를 나타냄

支庁別	鮮人数	紛争議發生件数
豊原	9,463	5
真岡	2,356	6
敷香	7,792	6
恵須取	13,295	9
計	32,906	26

備考 犯罪状況及紛争件数十八年度分トス

위의 표의 조사는 1940년 6월말의 것인데 당시 현 유즈노사할린지청과 홀름스크지청을 합한 한인 인구수가 11,819명이고 현 우글레고르스크지청에는 13,295명으로 되었다. 전체 인구의 40%가 우글레고르스크지청에 살고 있었다. 또 포로라이스크지청에는 24%가 살고 있었다. 그렇다면 일본정부가 조사한 것은 36%의 한인들이 살고 있는 지방만을 조사대상에 넣고 64%는 조사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오늘날의 영주귀국 및 보상 문제와 같은 해결에는 심각한 새로운 문제점을 낳게 하였다.

옆의 표(행정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 우글레고르스크 지청 당시 에스토루지청에는 16개의 대중소탄광이 가득하였다. 이것을 볼 때 특히 큰 탄광인 토로, 기타고자와, 타이헤이 및 니시사쿠탄 탄광들은 가동하고 있기에 조사를 하였으나 이제는 저희들 이중징용광부들의 자손과 유가족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일본정부, 일본적십자사, 한국정부, 한국적십자사에서는 이중징용자들의 운명 및 유가족들에 대한 문제를 조사하고 구제해야 될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적십자사에 사실을 통보하고 문제해결시에 지원하여 줄것을 염두에 두면서 독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 사건은 일본의 패전 1년을 앞두고 이 사할린 서북해안 12개 탄광에서 실시한 징용광부들의 진상이다. (1944년 8월 11일 일제 내각 결정에 근거하여 이중징용이 실행된 것임을 알리며 현재 참고 문헌들이 기술된 자료는 일본 석탄통제회에 보관되어 있다).

2002년 5월 20일
유가족회 회장 서정길
사무장 정태식

昭和15年6月末現在

炭礦名	半島人使用数			
	坑内	坑外	其他	計
△安別	-	1	-	1
興南	87	2	-	89
北・栄	35	67	-	102
△木原立岩	34	-	-	34
△西樺丹	29	41	-	70
豊畑	161	2	1	164
増田名好	90	44	-	134
北小澤	172	1	3	176
名好三福無煙	14	2	-	16
諸津無煙	8	64	-	72
千緒	50	71	-	121
○白鳥澤	-	-	-	-
△塔路	403	12	21	436
△上塔路	30	111	-	141
大平	585	23	2	610
恵須取	103	122	5	230
珍内	156	33	3	192
△南珍内	172	43	-	215
三浜	-	-	-	-
△小田洲	64	54	-	118
大栄	12	-	37	49
鷓巢	14	-	-	14
野田	17	9	-	26
内幌	272	15	-	287
△内川	20	36	-	56
泊岸	-	228	-	228
知取	39	6	-	45
樫保	87	21	8	116
白浦	89	26	2	117
辺計礼	13	8	-	21
△川上	92	22	-	114
内測	2	-	-	2
美田	22	148	-	170
合計	2,872	1,212	82	4,166

備考 △ハ五月、○ハ3月末現在ナ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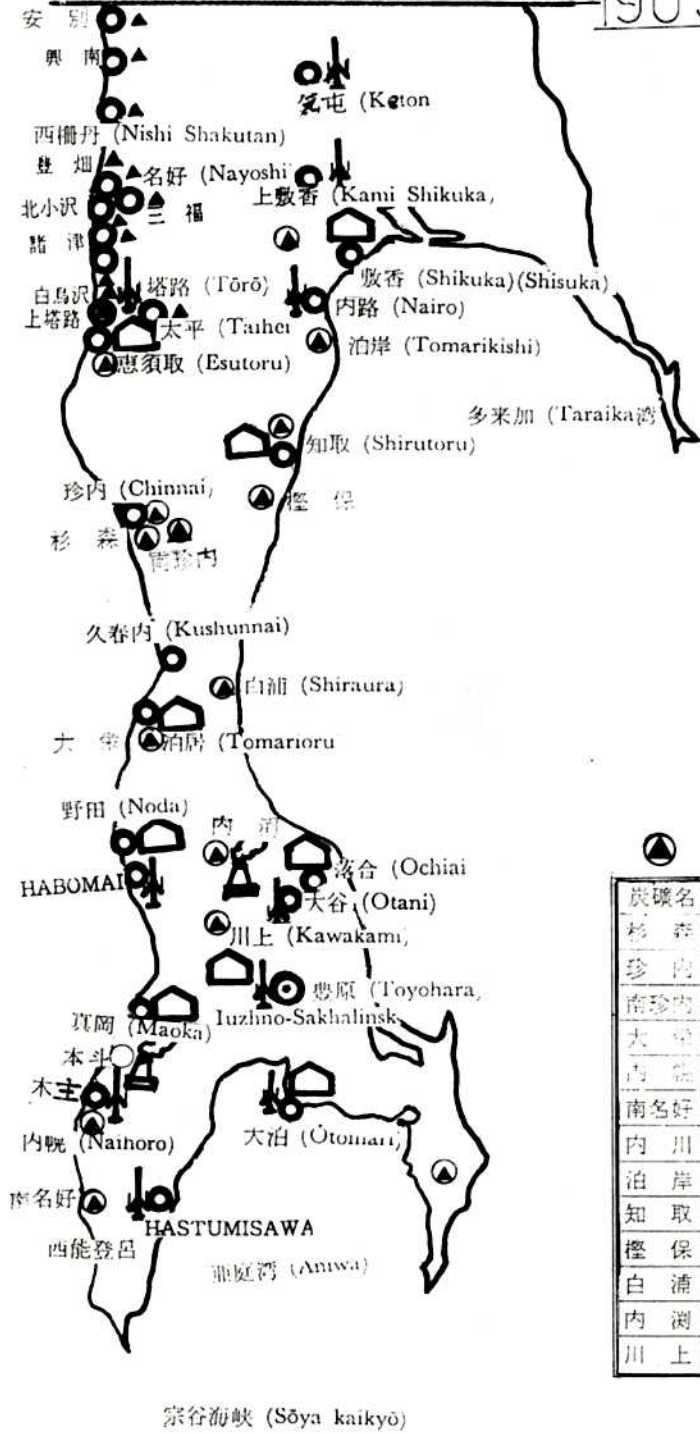
▶ 광부 4,166명 중에서 우글레고르스크 지청 2,396명
남쪽-1,770명

樺太庁行政文書

南樺太朝鮮人史

樺太 (Karafuto) Sakhalin 1905-1945-8.15

樺太炭礦別 지명은 日本名



証言 実証

사단법인 사할린주 한인 노인회

기호 도해

지명은 일본명

◎ 주소제지

○ 주요시 소재지

▲ 탄광

⊡ 제지 파이프 공장

✈ 비행장

△ 인조석유 공장

▲ 이중징용된 탄광

1944년 8-9월

유즈노-사할린스크 2002년 4.08

▶ 전상학 편집, 정태식 작성

2002년 4월 8일 Yuzhno-Sakhalinsk

戰時下惠須取炭田の朝鮮人鉱夫徵用連行圖(1944)

1944年 八・九月末



南樺太全圖

サハリン

サハリンと日本の戦後責任

戦後責任

樺太片所在地
 主要市町村
 炭鉱労働力(人数)
 日本人 ● 朝鮮人 ○
 667 徴用者数 1944.9月
 炭山規模数
 ○ 2000人
 ○ 1000人
 ○ 500人
 ○ 300人
 ○ 100人
 惠須取支庁
 現ウツレコールスクム

在サハリン州韓人二重徵用 二重徵用炭鉱所在地 韓家族会調査圖 1944年8~9月圖

▶ 정태식 작성 2001년 Yuzhno-Sakhalinsk

1940년 6월말의 사할린에는 32,906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었으며 그들 중 광부(탄광노동자)들은 합계 4,16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평양전쟁 발발과 더불어 강제 연행 노동자들의 수가 급증하였는데 그 정확한 수는 오늘날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본국회도서관에는 혹시 이 문서가 있는지도 모르나, 아직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에스토루 이북에 있는 탄광들이 1944년 8월 11일 일본 내각각의 결정에 의하여 완전히 폐광, 휴광, 또는 보광으로 두고 우선적으로 탄부들을 일본내지로 징용배치하였다. 그 수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 일부가 현재 일본 석탄통제회 도서관에서 찾은 것이다.

樺太各炭礦別坑夫轉換可能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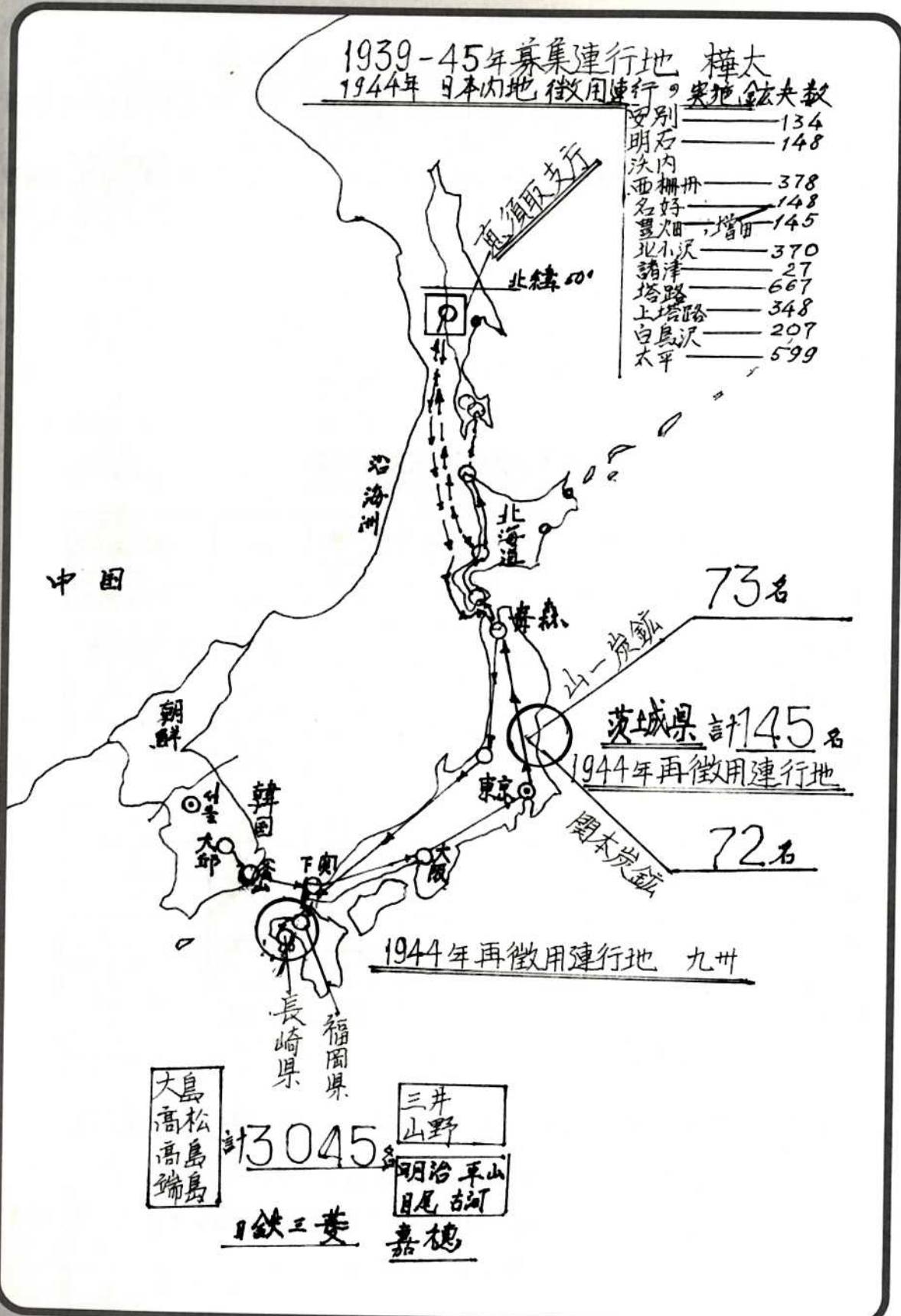
炭礦名	轉換可能數			所要數	轉換不能數	計	備考
	坑内夫	坑外夫	計				
塔路	930	680	1610	320	220	2150	保坑
西柵丹	500	370	870	60	106	1036	休止但保坑
安別	210	150	360	-	38	398	休止
北小沢	740	380	1120	-	120	1240	"
興南	115	105	220	-	26	246	廢止
豊畑	205	205	410	-	46	456	"
名好	210	160	370	-	44	414	"
三福	60	30	90	-	12	102	"
諸津	30	110	140	-	14	154	"
白鳥沢	320	200	520	-	62	582	"
上塔路	400	370	770	-	85	855	"
大平	730	260	990	200	135	1325	保坑
計	4450	3020	7470	580	908	8958	

1944年 8~9月 樺太現地에서 再徵用者數와 徵用當時炭鉱所在地名(日語) 現사할린주 우글레고르스크 이북지방서해안 인데 현재 調査対象地域 이다.

▶ 이 표는 이중징용된 탄광별 인원수와 폐광, 휴광, 보광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1939-45年募集連行地 樺太
1944年日本内地 徵用連行 奥地 鉦夫 教

安別	134
明石	148
沃内	
西柵柵	378
名好	148
豊久	145
北小沢	370
諸津	27
塔路	667
上塔路	348
白鳥沢	207
太平	599



▶ 사할린주 한인 이중징용광부 유가족회 작성 2001년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САРИНТО 南樺太全圖

1905-1945年 北緯50線 境界線



戦後責任

▶ 정태식 작성 2001년 Yuzhno-Sakhalinsk

안베쓰 탄광
ANBETU

안베쓰탄광
安別炭礦

(一)

着手年月日	鑛業權者	同上任所	鑛業事務所	鑛業代理人	備考
昭和十年 六月一日	日鐵鑛業 株式會社	東京都龜町區丸 ノ内二丁目二〇 ノ一	名好郡西柵丹村 大字安別字明石	河内 久次郎	

備考 昭和十六年七月一日新與炭礦株式會社ヨリ日鐵鑛業株式會社ニ讓渡

(二)

資本金 一五〇〇〇千圓、資本系統 日鐵

(三) 稼行狀況

稼行中ノ鑛區ハ三鑛區ニシテ水準上九〇米ノ地點ヨリ明石川ヲ袂ミ南北四鑛所ニ沿層水平坑道ヲ掘鑿シ斜向全充填長壁法ニヨリ拂面延長三〇米乃至六〇米トシテ採炭ノ進行ト共ニ兩鑛ノ換取ニヨリ石炭其ノモノヲ充填材料トシテ取期間坑内貯炭ノ形トシ適當ナル時期ニ風井ヨリ投入スル土砂充填ト交代セシム

現在手堀採炭ニシテ一部「電氣ドリル」ヲ使用シツツアルモ發電設備ノ充實ト共ニ逐次機械採炭ニ改メツツアリ採炭率七〇%ナリ

(四)

	生産資	積込資身他	本業兼渡債格	備考
上期	二一六五	二六五	三三三〇	
下期	一三三三四	二六五	一四三三三	

(五)

下期ニ於ケル應富換取セシハ昭和十八年當初ヨリ洗炭實施ノ爲貯炭一掃スルノ必要上ニ基キ極度ノ出炭制限ヲ爲シタルニ因ル
現在生産能力、最大生産能力及推定換取量

現在生産能力 一〇〇〇〇〇噸

最大生産能力 二〇〇〇〇〇噸

推定換取量 七八四〇〇〇〇噸

(六)

生産阻害ノ主ナル原因

イ、資材入手困難

ロ、勞力ノ不足

(七)

現在ノ經營狀況並將來性ノ有無

富礦産出炭ハ灰分硫黄分少ク、發熱量大ナル粘結性、滲膏炭ニシテ

코-난 탄광
KONAN

코-난 탄광
興南炭礦

(一)

着手年月日 昭和十年 九月二十四日	鑛業權者 泉和鑛業 株式會社	同上住所 惠須取郡惠須取 町字本町御社邊 一七	鑛業事務所 名好郡西橋丹村 字安別字知内	鑛業代理人 川口 晋	備考
-------------------------	----------------------	----------------------------------	----------------------------	---------------	----

(二) 資本金 一、五〇〇千圓、資本系統 泉和汽船株式會社

(三) 稼行狀況

現稼行炭層四層、層厚約一、三米走向略南北傾斜八度乃至四〇度沿層水平坑道ニ依リ水準上ノミヲ稼行シ各層共局部充填長壁式採炭法ニシテ手掘採炭トス採炭率七〇%ナリ

(四) 昭和十七年度ニ於ケル生産費(一應當)

	生産費	積込費其他	本炭渡價格	備考
上期	二五、七〇〇	一、七〇〇	一、七〇〇	
下期	二五、一〇〇	一、七〇〇	一、七〇〇	

(五) 現在生産能力 最大生産能力及推定埋藏量

(六) 現在生産能力 七八、〇〇〇 噸
 最大生産能力 一、二〇〇、〇〇〇 噸
 推定埋藏量 一、〇二九、六〇〇 噸

(七) 生産阻害ノ主ナル原因
 イ、電力ノ不足
 ロ、勞力ノ不足

(八) 現在ノ經營狀況竝將來性ノ有無
 當炭礦ハ社債トシテ泉京第一銀行ニ四十萬圓有之モ本債務ハ從前ノ經營者時代ニ借入シタルモノナリ
 現在之急弱小炭礦ノ苦難時代ナルモ最近ニ於ケル富礦ハ堅實ナル歩ミヲ見セ收支相平均シ居リ而モ炭質ハ原料炭トシテ極メテ優良ナルヲ以テ刻下ノ重工業ノ發育ト相俟ツテ其ノ將來性ハ有望ナリ
 其ノ他參考事項
 イ、補助金ノ交付
 昨年度賣炭量一應ニ對シ上期五、〇八四、下期三、一〇ノ割合ヲ以

니시사쿠탄 탄광
NISHISAKUTAN

니시사쿠탄 탄광
西樺丹炭礦

(一)

着手年月日	昭和三年七月一日	領業者	三井礦山株式會社	同上住所	東京都日本橋區寶町三丁目六二	領業事務所	名好郡西樺丹村字西樺丹番外地	領業代理人	花井 頼三	備考
-------	----------	-----	----------	------	----------------	-------	----------------	-------	-------	----

(二)

資本金 二〇〇〇〇〇千圓、資本系額 三井 稼行狀況

本炭礦ニハ主要炭層八層ヲ有シ其ノ中採掘ニ適スルモノハ一、二、三、四、六、七番層ナルモ現稼行炭層ハ二、三、四、六番層ノ四層ナリ層厚三米乃至一〇米傾斜四〇度乃至八〇度走向略南北約六斜、東西一、四斜ノ船底型炭田ナリ

採炭方法ハ層厚傾斜等ニ依リテ其ノ方法ヲ異ニスルモ長壁式片磐向前進拂或ハ後退式ヲ行フモノニシテ拂跡ハ緩傾斜層ニ於テハ跡バラシ帶充填、急傾斜ニ於テハ切羽向ヲ三八度乃至四〇度ノ傾斜層ト爲シ表土ノ取込或ハ坑外ヨリ搬入ノ土砂ヲ以テ全充填ヲ爲ス採炭率七〇多ナリ

打ツテ一九二〇ナリ増産ニ邁進中ニシテ亦積出ニ際シテモ月三回ノ公休日モ全員之方総擧作業ニ從事シ居リテ熱意旺盛ナルモノアリ

ハ、附隨事業ノ概況

西樺丹市街地ニ對シ燈火用電力供給中ナリ

ニ、職員並勞務者數 (七月末現在)

職 員	男	女	計	直轄坑夫	請負ニ依ル勞務者	計	備考
	一四一	二	一四三	七三〇	六七四	一四〇四	
	一四三	二	一四五	八一九	一〇五	九二四	
				七七九	六〇三	一三八二	

ホ、昭和十八年度予定出炭並配船割當數

予定出炭量	三八七〇〇〇	配船割當數	二七〇〇〇〇	備	考
				十七年度割當	二七〇〇〇〇噸
				實績	二〇九二一〇噸

ヘ、分析結果

種別	炭種	水分 %	灰分 %	揮發分 %	固定炭素 %	全硫黃 %	發熱量 大カリ	灰軟化點 C	灰熔融點 C	コークスノ性狀	炭質	用途性
第二種	切込炭	三九六	三七八	四三三	五六六	〇一九	七三〇〇			粘結	高青灰度	原料用

나요시 탄광
NAYOSHI

나요시 탄광
名好炭礦

(一)	着手年月日 昭和十二年 三月十七日	設立者 北橋太銀號 株式會社	同上住所 東京都總町區丸 ノ内二丁目二ノ	設立事務所 名好郡名好町大 字名好字豊畑	代表人 芳賀 惣五郎	備考
-----	-------------------------	----------------------	----------------------------	----------------------------	---------------	----

(二) 資本金 三〇〇〇千圓、資本系社 北橋太銀號株式會社
 (三) 稼行狀況

現稼行炭層五層、層厚一米乃至二米、走向略南北傾斜三五度乃至八
 〇度ナリ進入坑道ニ依リ水準上並水準下五〇米ヲ稼行シ一部ニ斜向
 全充墳長壁式採炭法及帶狀部分充墳長壁式採炭法ヲ施行シ居ルモ大
 部分ハ昇同柱房式ニ依ル。採炭ニハ一部ニ「コールピツク」ヲ使用
 スルモ大部分ハ「電氣トリル」及手堀ニシテ採炭率七〇%ナリ
 (四) 昭和十七年度ニ於ケル生産費(一應費)

上期	生産費	積込費其ノ他	本號炭價格	備考
二〇三三	二九三一	二七二三		

計	女	計	女
一〇〇五	一	一八二五	八八
		三三七	一三
		三三二	一一
		一一一一	一一

本 昭和十八年度予定出炭並配給割當數表

予定出炭量	配給割當數表	備考
一五〇〇〇	八五〇〇〇	十七年度配給割當 八五〇〇〇噸 八〇五〇〇噸

ハ、分析結果

種別	炭種	水分 %	灰分 %	揮發分 %	固定炭 %	全硫黃 %	發熱量 千カリ	灰軟化 C	灰熔點 C	コークス 特性	炭質	適性 用途
第一種	粉炭	三三.一	一六.〇	三三.二五	四七.八二	〇.五三	六七.四〇	一.二四〇	一.四四〇	粘		原粉炭

토요하타 탄광
TOYOHATA

토요하타 탄광
豐畑炭礦

(一) 着手年月日 昭和十七年十一月一日 鑛業權者 株式會社 東京都總町區丸ノ内二丁目 鑛業事務所 名好郡名好町大字名好字豐畑一番地 鑛業代理人 深谷 峻 備考

(二) 資本金 六〇〇〇千圓、資本系統 日本鑛管株式會社

(三) 稼行狀況 現稼行炭層八層、走向略南北傾斜七〇度 層厚一、二米乃至二米、鑛入坑道ニ依リ水準上ノミヲ稼行シ各層共斜坑長壁式採炭法ニシテ電氣ドリルヲ使用ス、採炭率九〇%ナリ

(四) 昭和十七年度ニ於ケル生産費(一應費)

上 期	三三、三九五	生産費	積込費其他	本坑兼炭價格	備考
下 期	三三、五三三		三三、二二〇	二六、六一五	

(五) 現在生産能力、最大生産能力及進足埋藏量

へ、分析結果

種別	炭種	水分	灰分	揮發分	固定炭	全炭質	發熱量	灰熔點	コクスノ性狀	炭質	適用性
第二種	粉炭	7.5%	21.5%	26.1%	47.9%	72.1%	7,300	1,000	粘結	原料用	

산부쿠 무연탄광
SANBUKU

산부쿠 무연탄광
三福無煙炭礦

(一) 着手年月日 昭和十五年四月十日 鑛業權者 佐竹喜一郎 名好郡名好町大字北小澤基線五 鑛業事務所 同上 鑛業代理人 佐竹喜一郎 備考

(二) 資本金 五〇〇千圓、資本系統 個人經營 (現在迄ノ投下資本)

(三) 稼行狀況 現在稼行炭層二層、層厚一、三米乃至一、四米傾斜四〇度乃至五〇度 岩石鑛入坑道ニ依リ水準上ノミヲ稼行シ全坑長壁式採炭法ヲ行ス手堀採炭ニシテ採炭率九〇%ナリ 富礦ハ礦區狹少ナルヲ將來大規模ノ増産ヲ期待スルコトヲ待ズ

(四) 昭和十七年度ニ於ケル生産費(一應費)

上 期	三〇、四六六	生産費	積込費其他	本坑兼炭價格	備考
下 期	三二、二一九		三〇、〇〇〇	三三、四六六	

기따고자와 탄광
KITAKOZAWA

기따고자와 탄광
北小澤炭礦

(一)

着手年月日 昭和十二年 七月二十日	鐵業楷者 南極太炭礦 鐵道株式會社	同上住所 東京都麹町區丸 ノ内二丁目ノ四	鐵業事務所 恩德取郡塔跡町 大字塔跡字塔跡	鐵業代理人 後藤太郎	備考
-------------------------	-------------------------	----------------------------	-----------------------------	---------------	----

(二)

資本金 一〇〇〇〇千圓、資本系社 三菱鐵業株式會社
發行狀況

(三)

現發行炭層ハ第一通洞ハ、第二通洞ニ分レ貯存炭層五層、層厚〇、八
米乃至一、五米走向略南北傾斜概ネ一五度乃至二〇度四、第一、第
二通洞ハ岩石坑道ニシテ專ラ水準上ヲ發行シ採炭方法ハ片巻向長壁
式退却拂ヲ原則トスルモ一部前進拂ヲ行ヒ拂跡ハ跡「バラシ」帶狀
部分充填式ヲ採用、採炭ニハ「コールピック」取ハ壓氣穿孔機ニ依
リ穿孔シ發破採炭ヲ施行、採炭率七五多ナリ

(四)

昭和十七年度ニ於ケル生産費(一應費)

上	生産費ノ積込費具ノ他	本採炭價格	備考
下	別	別	別
期	ニ〇〇〇	ニ〇〇	ニ〇〇
別	ニ〇〇	ニ〇〇	ニ〇〇

シツツアリテ熱意相當見ルベキモノアリ
ハ、附隨事業ノ概況
ナシ
ニ、職員並勞務者數

計	女	男	職員	直轄坑夫	其他勞務者	傭人坑夫	計	備考
一三	一	一二	一	一	一	一	一〇三	
一		一					一〇三	
七		一					一〇三	
一		一					一〇三	

ホ、昭和十八年度予定出炭並配給割合富數量

予定出炭量	配給割合富數量	備考
二〇〇〇〇	一〇〇〇〇	

ハ、分析結果

種類	炭種	水分 %	灰分 %	揮發分 %	固定炭 %	全硫黃 %	發熱量 カリ	灰軟化點 C	灰熔點 C	コクスノ性状	炭質	適性用途
塊炭	二三四	四六	六七	八二	〇三〇	七五七〇				不粘結	無燐炭	煉炭用

모로쓰 무연탄광
MOROTU

(五)

上	期	生産量	積込資具ノ他	平糶價格	備考
下	期	四三八八	五九五	五八三	
		四三八八	五九五	五八三	

(五) 現在生産能力、最大生産能力、推定埋藏量

現在生産能力 二、〇〇〇〇 噸

最大生産能力 二、〇〇〇〇 噸

推定埋藏量 七、二〇〇、〇〇〇 噸

(六) 生産阻害ノ主ナル原因

イ、配船不圓滑

ロ、勞力不足

(七) 現在ノ經營狀況及將來性ノ有無

特殊原料ノ無煙炭ナル關係上現在經營ニ多少ノ困難ヲ伴ヒツツアル
モ重要産業方面ニ需要増大シツツアルヲ以テ極力品質改善ニ努ムル
ト共ニ増産ニ主力ヲ在ギ居リ將來性アルモノト認ム

(八) 其ノ他參考事項

모로쓰 무연탄광
諸津無煙炭礦

(一)

着手年月日	續業權者	同上任所	續業事務所	續業代辦人	備考
昭和十二年十一月十二日	諸津炭礦株式會社	名好郡名好町大字諸津	同	上	越谷宗美

(二) 資本金 四、五〇〇千圓、資本系税 揖斐川電力株式會社

(三) 稼行狀況

現稼行炭層四層、層厚一米乃至二、一米、傾斜四五度乃至八五度本
坑鑿入坑道ヲ主要軌道トシ各炭層ヲ貫キ之ニ依リ炭層(二、四、五
、七番層)ヲ抽送シ水準上ノミヲ稼行ス
採炭法ハ二番層斜向長壁式採炭、四番層ハ一部二番層同様ノ採炭法
ヲ稼行シ居ルモ大半ハ跡バラシ法、五番層七番層ハ二番同様ノ採炭
法ヲ稼行シ居レリ、採炭ニハ「コールピック」竝ニ「ハンマードリ
ル」等ノ器械採炭トスルモ現在四番層ノミ採炭中ニシテ採炭率六五
分ナリ

(四) 昭和十七年度ニ於ケル生産量(一廳當)

토오로 미쯔비시 탄광
TOORO "MISTUBISHI"

미쯔비시 탄광
塔路炭礦

미쯔비시 탄광

(一) 着手年月日 鑛業權者 同上 任所 鑛業事務所 鑛業代進人 堀考

昭和八年 南樺太炭礦 東京都麹町區丸 惠須取郡塔路 後藤 太郎
十月四日 鑛道株式會社 町字塔路

(二) 資本金 一〇〇〇〇千圓、資本系統 三菱鑛業株式會社
(三) 移行狀況

探炭區域ハ一坑及二坑ニ分レ、存炭層中十層ヲ移行シ層厚〇、八米乃至四米、第一坑走向略北三六度、傾斜三〇度、第二坑走向略南北傾斜二〇度、西ニシテ層位層厚共ニ比較的整然タリ
岩石堅入坑造又ハ岩石斜坑造ニ依リ水準上及水準下(一七〇米)ヲ移行シ探炭法ハ主トシテ長壁式片岩向退却拂ヲ採用シ層ルモ一部ハ前進拂ヲ行ヒ拂跡バラシ帶狀部分充填法ニ依ル
探炭ニハ「コールピツク」或ハ鑿氣穿孔機ニ依リ穿孔シテ發破探炭ヲ行フ探炭率七五%ナリ
(四) 昭和十七年度ニ於ケル生産量(一萬圓)

		生産量	積込資具ノ他	平給炭没償存	備考
上	期	二二二九	二二八	二二七七	
下	期	二二六五	二二八	二二二三	

(五) 現在生産能力、最大生産能力、推定埋藏量

現在生産能力 九〇〇〇〇〇
最大生産能力 一、〇〇〇〇〇〇
推定埋藏量 一、六六、六七、〇〇〇

(六) 生産改善ノ主ナル原因

- イ、生産機械ノ劣化
 - ロ、勞力不足
 - ハ、坑夫ノ素質、体力ノ低下、半島勞務者ノ雇傭ニ依リ能率ノ低下
 - ニ、現業係員(主トシテ技術員)ノ不足、品質低下
 - ホ、船隻ノ不足
 - ヘ、各機資材入手難
- (七) 現在ノ經營狀況、近將來性ノ有無

토-오로 하꾸조사와 탄광
TOORO "HAKUCHOSAWA"

하꾸조사와 탄광
白鳥澤炭礦

(一)	着手年月日 昭和十四年 六月二十日	鑛業權者 濱六鑛業 株式會社	同上住所 豊原市大字豊原 字北二線東八番地	鑛業事務所 豊原郡塔路町 大字塔路字塔路 番外地	鑛業代理人 渡部 孝一	備考
-----	-------------------------	----------------------	-----------------------------	-----------------------------------	----------------	----

(二) 資本金 三〇〇〇〇千圓、資本系統 王子製紙株式會社
(三) 移行狀況 現移行炭層九層、層厚一米乃至四、二米走向略南北傾斜三〇度乃至三五度

(四) 岩石鑿入坑道又ハ沿層斜坑道ニ依リ水準上及水準下八五米迄移行シ局部充填及二段追掛拂長壁式採炭法ヲ施行ス
採炭ニハ「電氣ドリル」及「ゴールカッター」ヲ使用ス
昭和十七年度ニ於ケル生産炭(一應當)

上	期	生産炭	償込賃其/他	本製炭價格	備	考
下	期	二二〇五	三三三	二三四一		

가네보탄광
上塔路炭礦

(一)	着手年月日 昭和十二年 二月十一日	鑛業權者 錦洲實業 株式會社	同上住所 東京都向島區隅 田町	鑛業事務所 惠須取郡塔路町 大字塔路字塔路	鑛業代理人 三宅 國治	備考
-----	-------------------------	----------------------	-----------------------	-----------------------------	----------------	----

(二) 資本金 七〇〇〇〇千圓、資本系統 錦 紡
(三) 移行狀況

現在迄ニ判明セル炭層十四層其ノ内移行中ノモノ十一層、層厚一米乃至三、五米傾斜五度乃至四〇度賦存狀況ハ斷層多ク走向常ニ著數ク變化アリ岩石鑿入坑道及斜坑ニ依リ水準上及水準下四五〇米迄ヲ移行シ局部充填長壁式採炭法及向昇採炭ニ依リ外露天掘ヲモ施行シ採炭率七〇%ナリ

(四) 昭和十七年度ニ於ケル生産炭(一應當)

上	期	生産炭	積込賃其/他	本製炭價格	備
下	期	一八三三	二八八二	二二二九八	

考

ハ、分析結果

種別	炭種	水分 %	灰分 %	揮發分 %	固定炭素 %	全硫黃 %	發熱量 カロリ	灰軟化點 C	灰熔融點 C	コックスノ性狀	炭質	適用性
第二種	粉炭	三八七	二一六六	三六七一	五七三六	〇二七	七〇一〇			不粘結		原料用

타이헤이 탄광
大平炭礦

(一)	着手年月日 大正十二年 八月一日	營業權者 樺太礦業 株式會社	同上 任所 豐原市大字豐原 字北二線泉八番 地	營業事務所 惠須取郡惠須取 町大字大平字大 平番外地	礦業代理人 今村 俊	備考
-----	------------------------	----------------------	----------------------------------	-------------------------------------	------------------	----

(二) 資本金 三〇〇〇〇千圓、資本系統 王子製紙株式會社
移住狀況

(三) 炭層十一層アルモ現在一、四、九番層ヲ休止シ他ノ八層ヲ採炭中、層厚一、二米乃至七、二米傾斜一五度乃至二五度ノ緩傾斜ナリ沿層水平坑道、沿層斜坑及岩石鑿入斜坑ニ依リ水準上並水準下(二二〇米)ヲ移住シ局部充填長壁式及柱房式採炭法ヲ施行ス採炭ニハ「電氣ドリル」「コイルピック」及「コイルカッター」ヲ使用シ採炭率平均七〇%ナリ
尚現在坑口ハ西一、四二、四三、南坑及新坑ノ五坑アリ目下太斜坑開鑿中ナルモ明年度之ガ完成ノ予定ナリ
(四) 昭和十七年度ニ於ケル生産量(一) 噸

(五) 現在生産能力、最大生産能力、推定埋藏量

現在生産能力	二五〇〇〇〇噸
最大生産能力	五〇〇〇〇〇噸
推定埋藏量	五三〇〇〇〇〇噸

(六) 生産障害ノ主ナル原因

イ、配船不圓滑
ロ、勞力不足

(七) 現在ノ經營狀況及將來性ノ有無

炭質ハ粘結性ニシテ發熱量大ナル良質ノ原料炭ナルモ前記生産障害原因ニ稱サレ目下經營困難ヲ加ヘツツアルモ極力操業ノ合理化ニ努力中ニシテ殊ニ坑内トアリテ木炭進ヲ更ニ廉化シ將來ニ生産量増大ヲツツアリテ益々有望ナルモノト認ム

(八) 其ノ他參考事項

イ、補助金ノ交付

買取補助金等ノ交付ヲ受ケルモ經營一切本社直轄ナル爲詳細不明

에스토루(텐나이) 탄광
ESUTORU (TENNAI)

텐나이탄광
一三 惠須取炭礦

(一) 着手年月日	昭和二年 十二月二十日	領業權者	日曹炭業 株式會社	同上住所	東京都葛飾區大 毛町二ノ八ノ七	領業事務所	惠須取郡惠須取 町大字惠須取三 天内	領業代理人	鳴海 淳	備考
-----------	----------------	------	--------------	------	--------------------	-------	--------------------------	-------	------	----

(二) 資本金 500,000千圓、資本系社 日本曹達株式會社
(三) 現行狀況 現行炭層ハ六層ニシテ層厚一米乃至一〇米傾斜七七度乃至八二度ナリ

(四) 鑿入坑道及沿層岩石斜坑ニ依リ水準上竝水準下(五〇米迄)ヲ移行シ全坑壞長壁式採炭法ヲ施行ス
採炭ハ全部「電氣ドリル」ヲ使用シ採炭率六〇%ナリ
昭和十七年度ニ於ケル生産量(一聽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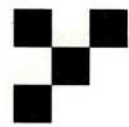
上	下	生産量	積込量 其他	本礦 積込量	備考
1,000	1,000	1,000	1,000	1,000	

ホ、昭和十八年度予定出炭並配給割當數量

予定出炭量	配給割當數量	備考
移出 350,000	300,000	十七年度實績 四一四、九〇聽
島内 1,650,000	2,350,000	
計 2,000,000	2,650,000	

ヘ、分析結果

種別	炭質		水分 %	灰分 %	揮發分 %	固定炭 %	全硫黃 %	發熱量 力/斤	灰軟化 點 C	灰熔融 點 C	コクス 性状	炭質	適用性
	中塊炭	粉炭											
第三種	五七五	五七一	五七三	三八九	四七六	〇三三	六九五〇	一二九〇	一三九〇	凝結	一般用	生炭	生炭



種別炭種	水分	灰分	揮發分	固定炭	全硫黃	發熱量	灰軟化	灰熔融	不結核性	炭質	適用途性
第三種中塊炭	19.5	21.0	18.5	48.5	0.19	6,500	1,500	1,500	不結核性	炭質	適用途性
塊炭	17.5	21.5	18.5	48.5	0.19	6,500	1,500	1,500	不結核性	炭質	適用途性

ハ、分析結果

予定出炭量	配船割當數量	備考
移出 50,000	30,000	備考
島内 60,000	30,000	備考
計 57,000	30,000	十七年度配船割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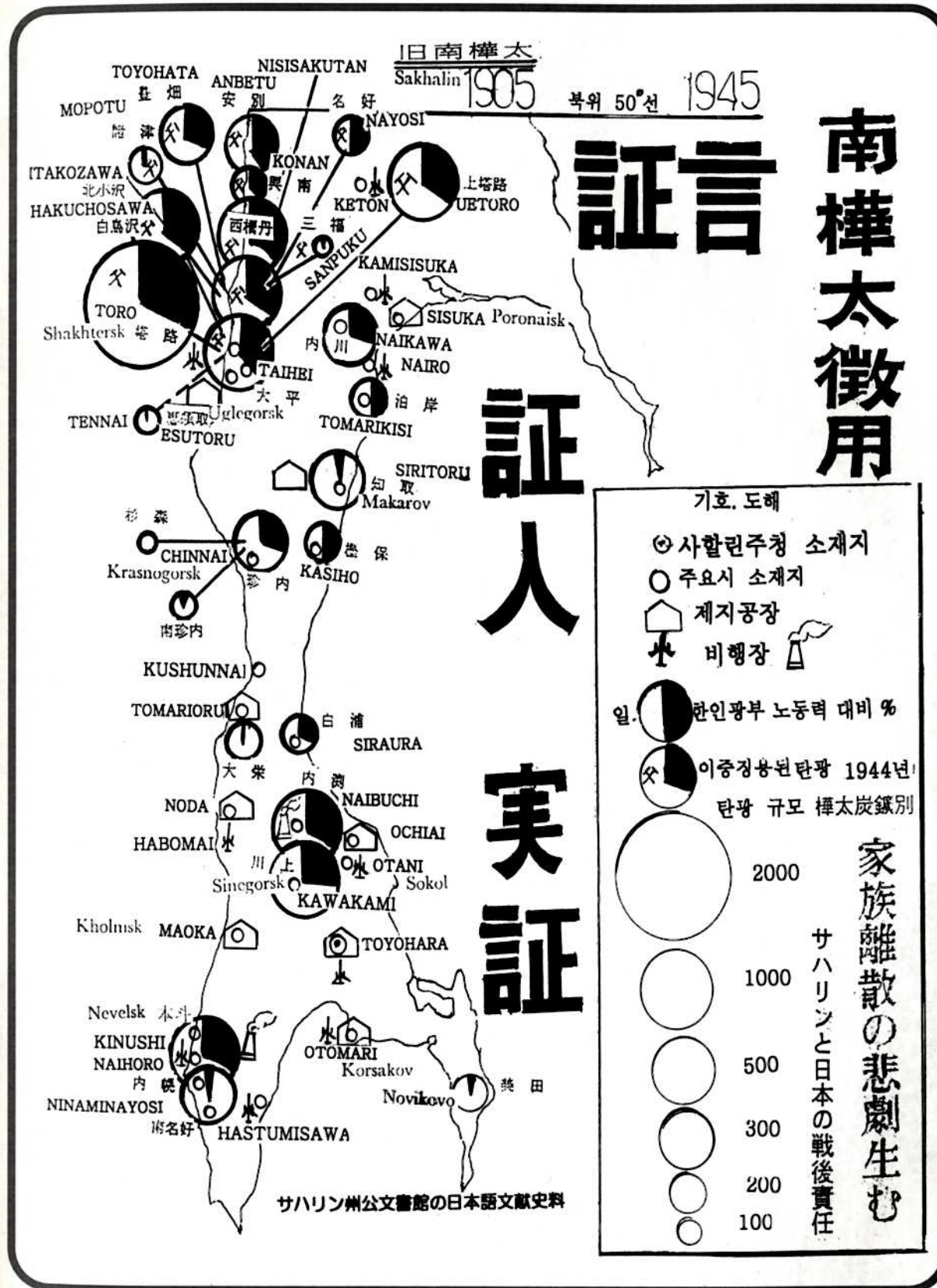
ホ、昭和十八年度予定出炭並配船割當數量

計	男	女	職別
1,200	1,000	200	内勤人員
1,200	1,000	200	直轄坑夫
1,200	1,000	200	其他勞務者
1,200	1,000	200	籍人坑夫
1,200	1,000	200	計
1,200	1,000	200	備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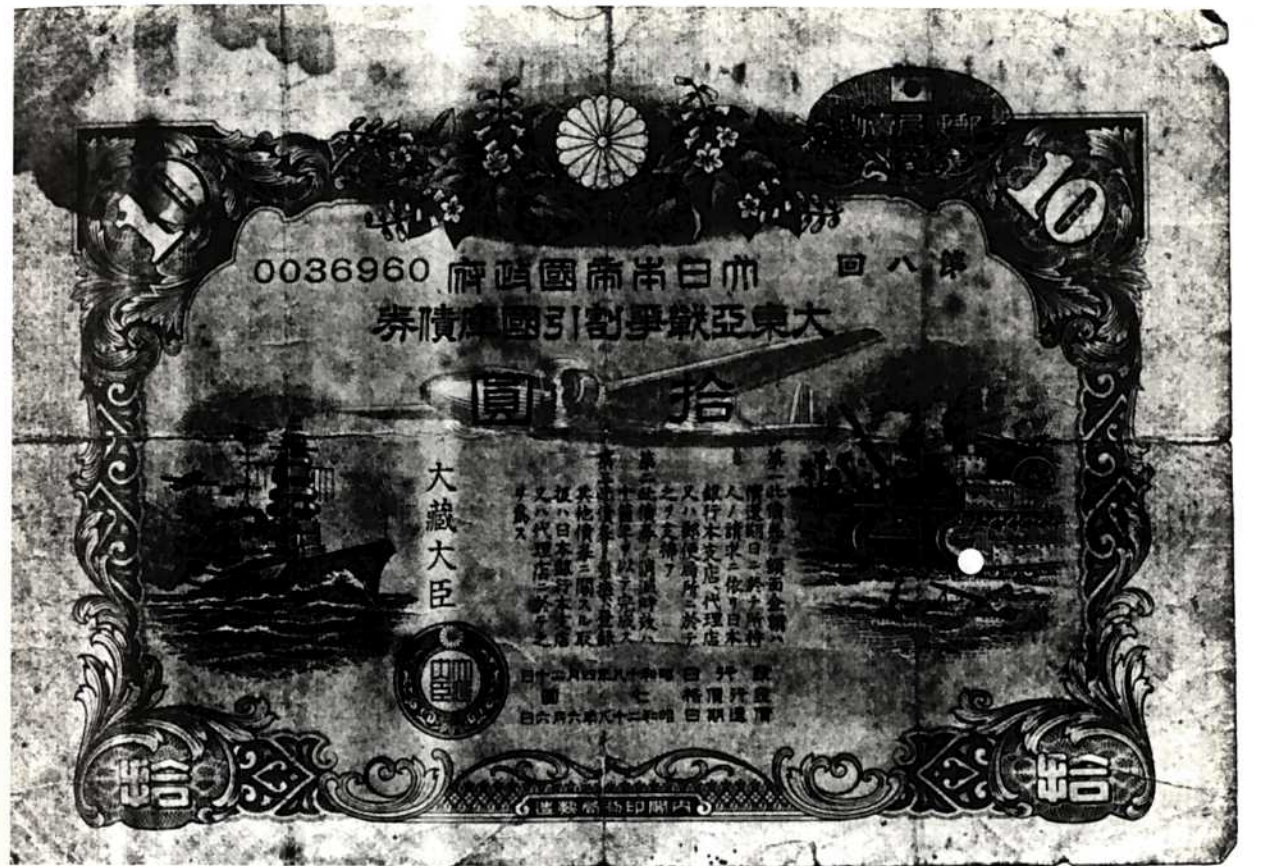
ニ、職員並勞務者數

(七月末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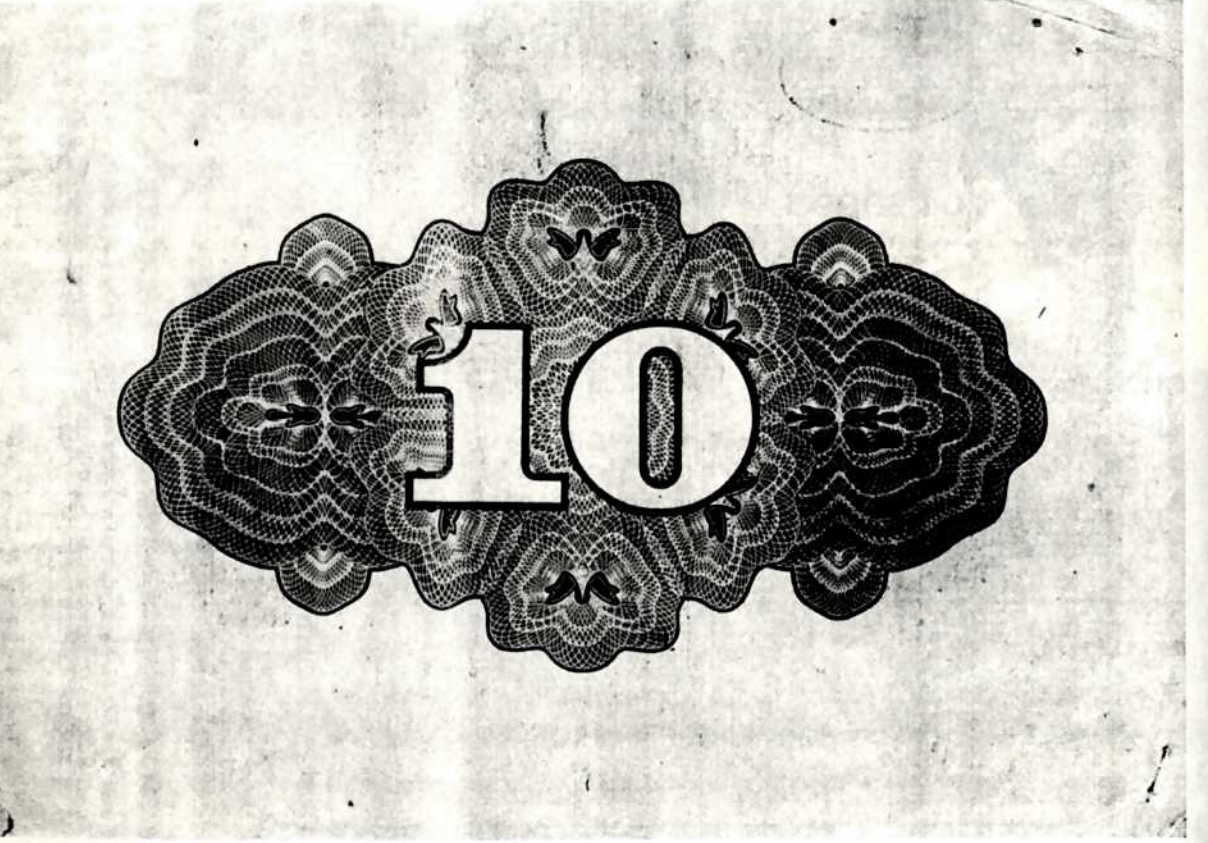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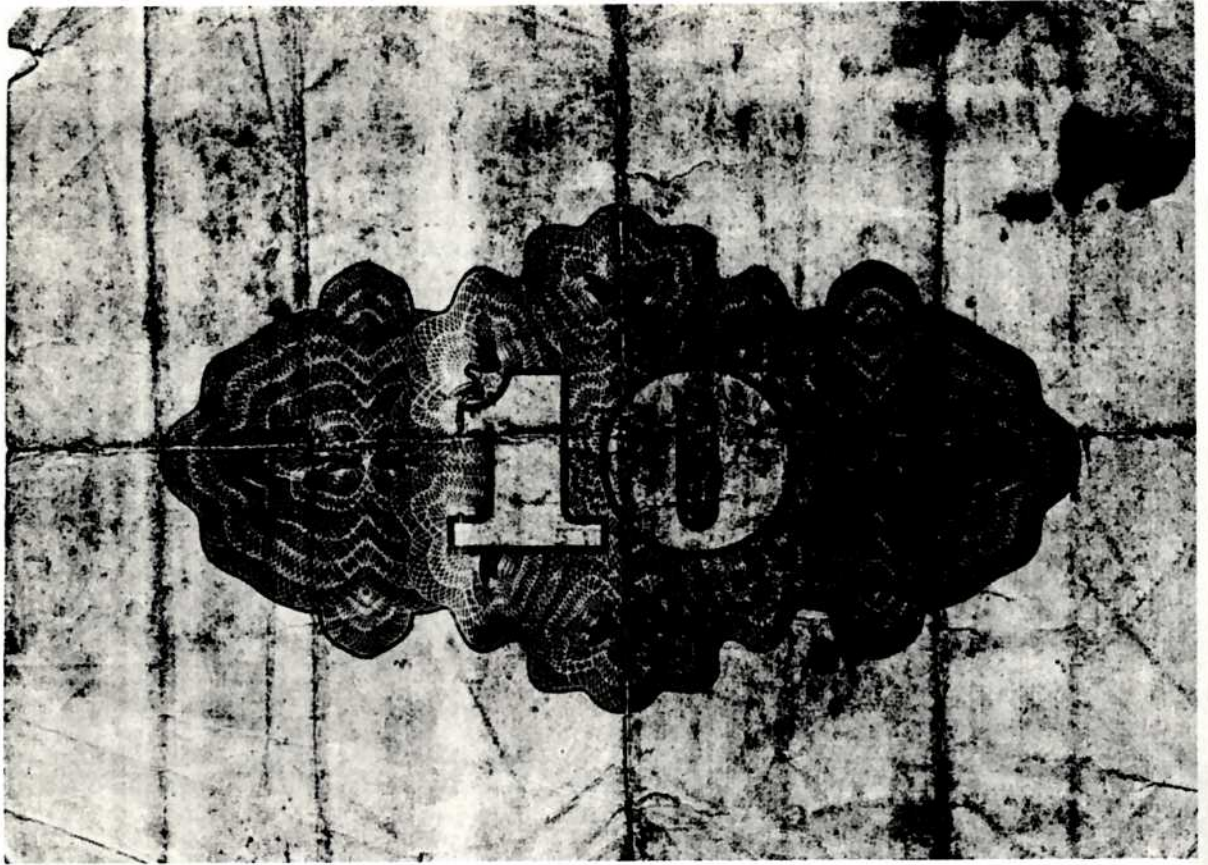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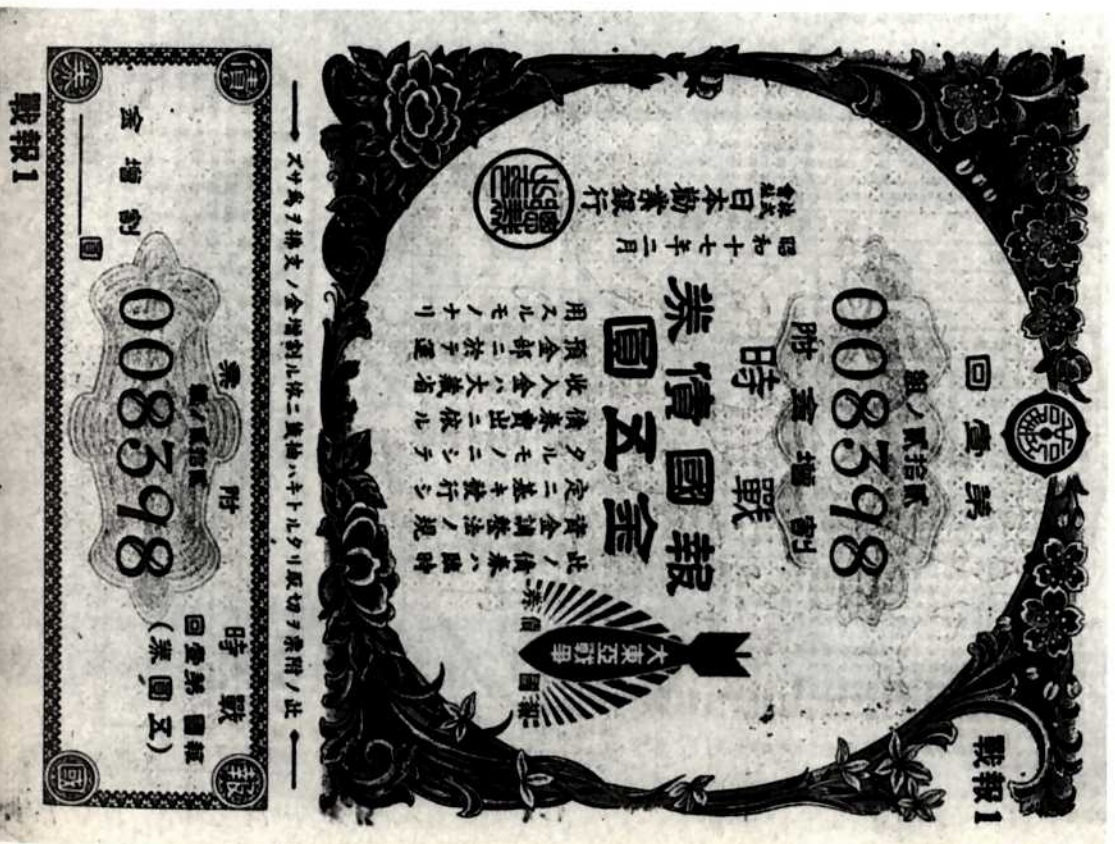
ナ、附隨事業ノ概況
 一、煤シ居ル實情ニ在リ
 二、職員並勞務者數



▶ 전 상주 편집 정 태식 작성



▶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발행된 일본 채권이며 6회, 8회것임



▲辨

券別	金額	枚數	合計金額
第一券	1000	100	100000
第二券	500	200	100000
第三券	100	1000	100000
第四券	50	2000	100000
第五券	10	10000	100000
第六券	5	20000	100000
第七券	1	100000	100000
合計			700000

○48725

▲辨

▲辨

券別	金額	枚數	合計金額
第一券	1000	100	100000
第二券	500	200	100000
第三券	100	1000	100000
第四券	50	2000	100000
第五券	10	10000	100000
第六券	5	20000	100000
第七券	1	100000	100000
合計			700000

○48725

▲辨

▲辨

券別	金額	枚數	合計金額
第一券	1000	100	100000
第二券	500	200	100000
第三券	100	1000	100000
第四券	50	2000	100000
第五券	10	10000	100000
第六券	5	20000	100000
第七券	1	100000	100000
合計			700000

○03407

▲辨

▲辨

券別	金額	枚數	合計金額
第一券	1000	100	100000
第二券	500	200	100000
第三券	100	1000	100000
第四券	50	2000	100000
第五券	10	10000	100000
第六券	5	20000	100000
第七券	1	100000	100000
合計			700000

○03407

▲辨

報 4

國報

回四第

附金增割報

附金拾圓券

鐵道日本勸業銀行

昭和十五年九月

此ノ債券ハ、時價金調整法ノ規定ニ基キ、發行シタルモノナルヲ以テ、預金部ニ於テ、大藏省ノ運用ニ依ル。

▲辨

報 4

報 4

國報

回四第

附金增割報

附金拾圓券

鐵道日本勸業銀行

昭和十五年九月

此ノ債券ハ、時價金調整法ノ規定ニ基キ、發行シタルモノナルヲ以テ、預金部ニ於テ、大藏省ノ運用ニ依ル。

▲辨

報 4

▲ 이것은 중일전쟁때 발행된 국채이다. 일본이 15년간 전쟁상태인 비상전시하에 있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즉 그들이 말하는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 1941년 12월 8일 대동아전쟁이 그것이다. 이 장기 전쟁에서 수많은 조선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강제연행하였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1939~1945년 사이에 자율적인 모집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 이것으로 증명된다.

戦報1

報 債 附 時 戦

008389

附 増 割

業 園 報 時 戦

008389 (業園五)

日本勧業銀行

昭和十七年二月

此、債券八階時
資金調整法ノ規
定ニ基キ發行シ
タルモノニシテ
債券賣出ニ依ル
收入金ハ大蔵省
預金部ニ於テ運
用スルモノナリ

大東亞野郎 園報

附 増 割 008389

業 園 報 時 戦 008389 (業園五)

戦報1

戦報1

報 債 附 時 戦

008398

附 増 割

業 園 報 時 戦

008398 (業園五)

日本勧業銀行

昭和十七年二月

此、債券八階時
資金調整法ノ規
定ニ基キ發行シ
タルモノニシテ
債券賣出ニ依ル
收入金ハ大蔵省
預金部ニ於テ運
用スルモノナリ

大東亞野郎 園報

附 増 割 008398

業 園 報 時 戦 008398 (業園五)

戦報1

報 債 附 時 戦

8Pc800

附 増 割

業 園 報 時 戦

8Pc800

日本勧業銀行

昭和十七年二月

此、債券八階時
資金調整法ノ規
定ニ基キ發行シ
タルモノニシテ
債券賣出ニ依ル
收入金ハ大蔵省
預金部ニ於テ運
用スルモノナリ

大東亞野郎 園報

附 増 割 8Pc800

業 園 報 時 戦 8Pc800 (業園五)

戦報1

報 債 附 時 戦

P8c800

附 増 割

業 園 報 時 戦

P8c800

日本勧業銀行

昭和十七年二月

此、債券八階時
資金調整法ノ規
定ニ基キ發行シ
タルモノニシテ
債券賣出ニ依ル
收入金ハ大蔵省
預金部ニ於テ運
用スルモノナリ

大東亞野郎 園報

附 増 割 P8c800

業 園 報 時 戦 P8c800 (業園五)

戦報1

昭和19年 摘要預金返金差引残高 昭和19年 摘要預金返金差引残高

4/10 預入	1,000		
4/10 債券		1,500	500
6/10 預入	1,000		1,500
7/10 預入	1,000		2,500
8/10 預入	2,000		4,500
11/20 牛山付替		4,500	0
11/21 預入	8,321.10		
11/21 預入		2,000	10,321.10
12/23 預入	2,944.50		13,265.60
3/23 湯島代		2,500	15,765.60
4/1 預入		2,500	18,265.60
4/28 預入		1,000	19,265.60
5/1 預入		2,000	21,265.60

▶ 법률가들은 이 자료에 대하여 심각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문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전쟁 중이었고 이후 사할린이 구소련에 반환되었으므로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積立金心得

No. 3131

- 1 積立金の當會社ニ於テ保管セ預入ノ翌日ヨリ拂戻ノ前日迄日歩式錢ノ當合ノ以テ利息ヲ附シ毎年六月十日ノ二回之ヲ精算シ元金ニ繰入ルヘシ但利率ハ之ヲ變更スルコトアルヘシ
- 2 積立金ハ解成地ハ死亡ノ場合ニテアラバハ拂戻ヲナシアルモノトス
- 左記ノ場合ニ於テハ前項ノ規定ニ拘ハラズ亦由ラ認明セシメ拂戻ヲナスヘシ但シ拂戻ノ程度ハ職業所長其事柄ヲ斟酌シテ之ヲ定ム
- 4 勞務員カ勞務ニ供ヘサル疾病傷別ニ罹リ該隊久シキニ涉リタルトキ
 - ロ 勞務員不昧ノ結果ニ遭遇シタルトキ
 - ハ 勞務員ガ一ヶ月以上ニ涉リテ歸郷スルトキ
 - ニ 勞務員ガ婚嫁ハハ葬儀ニ充ツルトキ

私本系任
私本康速殿

積立金内譯帳抄本

- 3 此帳簿抄本ハ當會社ノ積立金内譯帳ノ抄本ナルモ若シ會社ノ本帳簿ト相違ノ點アルトキハ凡ソ會社ノ本帳簿ニ依リ計算スルモノトス

樽太礦業株式會社
白鳥澤礦業所

▶ 현재 생존하고 있는 오세욱씨(1929년생)의 부친 오경술(일본 성 마쓰모토)씨의 직장사고에 관한 문건으로 1944년 류슈 정공시에 사망하였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지불되는 예금으로 탄광당국에 보존되어 있는 저금 통장인 것이다. 이상은 각 탄광마다에 "쓰미나데" 저금을 강요하였다. 그리고는 저금통장은 개인들에게 주지 않았다. 이 저금액은 얼마가 되는지조차 모른 채 오늘날까지 미지수로 남아 있다.

외지 우편 저금의 상황

일본우정성의 발표 1991년 2월

항목	평성2년 3월말 현재 고		지불 상황		설명
	구좌수(만구)	금액(백만엔)	일본인 예입분	외국인 예입분	
회계	59	172	지불중	보류	남해도의 서정권을 갖는 소련 정부와의 사이에서 평화 조약이 체결되어야 하지 않으므로 일본 외국인이 이용해도 우편 저금의 지불과 같이 대응하여 온것임 . 그러나 최근에 국제군 개선이 급속히 진행하여 오고 그중 회계 주민의 태반이 북조선 국적이기 때문에 북조선 주의 우편 저금의 지불현황과 관련하여 총리부 외정심의실 및 외무성이 지불에 대하여 논의를 타내고 있어 현재 조정중임.
조선	1,439	1,425		한국	소화 40년에 체결된 일반 협정 및 관계 법령에 의거 근거는 소멸하고 있음.
				북조선	
대만	242	114		보류	소화 27년의 일화 평화 조약에 기한 특별 협의 결정을 통하여 처리토록 되어있으나 소화 47년의 일중국고 정상화에 따라 동 조약이 종료됨으로 미시결단체 있으며 타의 재선청구권과 의 관련으로 그 지불을 보류하고 있음.
계	1,740	1,711			

외지 우편 편의 저금의 상황

平成 3 年 2 月
郵政省貯金局業務課
우정성저금국업무과

項目	平成 2 年 3 月 末 現在 高		支払状況		說明
	口座数(万口)	金額(百万円)	日本人分	外国人分	
種別	59	172	日本人分	外国人分	<p>樺太の施政権を持つ連政府との間で平和条約が締結されていないため、一般の外国人が利用する郵便貯金の支払と同様に対応してきた。しかし、最近になって、国際関係改善が急速に進展してきており、この中で、樺太住民の大半が北朝鮮国籍である。から、北朝鮮住民の郵便貯金の支払状況との関連で総理府外政審議室及、務省が支払について難色を示しており、現在、調整中である。</p>
朝鮮	1,439	1,425	保留	消滅	
合計	242	114			

▶ 이것은 1991년 2월 일본국 우정성이 발표한 사할린(회태)청의 우편 저금의 현황이다 (미지불)

ДОЛГИ

Сахалинцы хотят вернуть свои вклады

Получат л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вои вклады?

Впервые эта проблема серьезно была поднята в начале 90-х. В октябрьском номере за 1991 год в "Советском Сахалине" появилась сенсационная статья М. Войниловича "Клад в архиве", в которой автор опубликовал материалы с вклада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хранившихся в японских сберегательных кассах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до 1945 года. Суть состояла в том, что в августе 1991 года посольство Японии в Москве в адрес МИДа СССР прислало ноту с просьбой посодействовать в выявлении вопроса о сохранности в руках союзны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или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регистрационных книг вкладов, находившихся в филиале сберегательн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чтовой связи Японии в городе Тойохара, который существовал с 1 апреля 1943 года до конца II мировой войн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запрос был переслан Министерств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ССР председателю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исполкома В.П. Федорову. Архивный отдел облисполкома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оверки установил, что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до 1945 года действовала разветвленная сеть сберегательных касс, находившихся при почтовых отделениях. В период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часть документации финансовых учреждений была уничтожена по распоряж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Карафута. Оставшиеся материалы оказались трофеем Красной Армии, а затем были переданы гражданским органам управления.

В марте 1957 года в подвале зда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ркома партии был обнаружен архив япон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состоявший из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карточек и книг по учету

вкладов японских граждан, а также почтовых переводов". Этот архив находился в хаотичном состоянии, по заключению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инадлежал центральной сберегательной кассе губернатора Карафута в городе Тойохара. В июне того же года из арх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ВД РСФСР поступило указание о том, что найденные материалы должны быть сохранены до "заключения мирного договора с Японие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указания архи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обещало направить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мнения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 частности Министерства финансов СССР.

Е.П. Федоров информировал МИД СССР и японское посольство об имеющихся в его распоряжении данных. Окончательный ответ по данному вопросу было обещано сообщить после изучения комплекса японских трофейных документов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архи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ондах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евого Госархива, а также ведомственных архивов банковских и финансовых учрежде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Лишь в 1998 году снова вернулись к проблеме вкладов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в Токио вновь стал актив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вопрос о компенс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денежных сбережений, хранившихся в сберкассах филиала сберегательн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чтовой связи Японии. Тогда и было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найденный в 1957 году архив филиала сберегательн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чтовой связи Японии в г. Тойохара в декабре 1958 года был уничтожен. Акт от 25 декабря 1958 года гласит: "Мы, нижеподписавши-

ся заместитель начальника ХОЗО УВД майор Соколов И.Ф., старший инспектор артвооружения ХОЗО УВД капитан Чумаков, инспектора архивного отдела УВД Буравцов И., Аксютин Ю.Е., Зубков В.В., составили настоящий акт на уничтожение документов японской сберкассы, прошедших в негодность вследствие длительного хранения их в сыром подвальном помещении.

При разборке архива японской сберкассы и переводе его в другое помещение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от общего количества отобранных документов 25% из них подвержены физической порче: ржавчины не пригодны и заражены грибом. Комиссия пришла к выводу, что вышеуказанные материалы хранить нецелесообразно.

Ввиду того, что сгнившие документы не пригодны к сдаче в макулатуру, комиссия предлагает уничтожить их путем сожжения".

Как видно по содержанию акта, трудно с точностью установить, были ли уничтожены все документы или только их часть, н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архи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хранится довольно крупный комплекс японских трофейных документов периода губернаторства Карафута за 1905-1945 годы. Но документов филиала сберегательн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чтовой связи Японии среди них нет. По мнению специалистов архивного отдел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менно эти материалы и были уничтожены в 1958 году.

Очевидно, что все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в свое время ни центральные, ни местные

власти не проявили должного интереса к документам архива. В то же время нашлись чиновники, посчитавшие, видимо, нецелесообразным дальнейшее хранение этих материал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архивах России нет каких-либо регистрационных финансовых документов: необходимых японской стороне для возмещения вкладов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Однако следует учитывать, что у многи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или 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обладающих правом наследования, сохранились сберегательные книжки, выданные филиалом сберегательн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чтовой связи Японии в г. Тойохара. Японская сторона в связи с этим заявила, что вопрос о возможности выплаты по вкладам на основании имеющихся сберкнижек требу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роработки, с результатами которой было обещано информировать российскую сторону.

Трудно ответить с уверенностью на вопрос: будут ли возвращены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деньги по вкладам? И как скоро это произойдет? Однако нет сомнения в том, что возвращать долги нужно. Пусть даже если это произойдет через 55 лет. Тем более что сегодня япо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лагает немало усилий для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причиненного своей политикой. Хочется верить, что и российская сторона приложит все усилия в решении этой проблемы. Не стоит напоминать, что в хитроуплетениях большой политики не следует забывать о судьбах отдельных людей.

Ю. АЛИН, старши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афедры истории СахГУ.

► Исходная статья в журнале "История" № 1 за 1998 год.

Сахалинцы хотят вернуть свои вклады

2001年 三月 一日



사할린한인이중징용 당한자들의 후손들의 요구

피해자 유가족들의 회의에서

지난 14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주농업관리국 회의실에서 사할린주 이중징용당한자들의 가족들의 회의가 있었다. 회의에 다카키 켄이찌변호사, 주한인회 박해통회장이 참가·발표하였다. 회의 의정은 "이중징용피해자 자식들의 운명에 대하여"와 "일본정부와 관련기업체에 보내는 호소문과

피해보상요구서 채택에 대하여"이었다. 회의에서 이중강제징용찾기발기자위원회 안명복 위원장이 이중징용피해자 자식들의 운명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일본에 보내는 서명서와 6조항으로 된 기본요구를 접수하였다. 아래에 기본요구를 게재한다.

사할린한인이중징용 탄부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영주귀국 및 보상문제에 관한 기본 요구.

1. 1945년 8월 15일까지 출생한 유가족들을 피해자로 취급하여 매 유가족에게 보상할 것.
2. 고국인 한국으로 영주귀국 희망자들에게는 귀국자가 요구하는 지방에 개인소유권이 보장된 주택을 제공하며, 부양자들을 동반하는 귀국을 보장할 것.
3. 영주귀국 유가족들에게는 생활보상을 위하여 1인당 매월 20만엔을 지불하며 전 생애기간에 무상의료를 보장할 것.
4. 영주귀국후 사망자에게는 망향의 동산을 비롯한 어디에든지 유언대로 매장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한국정부에 요청함.
5. 이중징용탄부들 중 1945년에서 2001년 현재까지 생사여부를 알지 못하는 행방불명자들을 찾기 위한 탐사기구를 조직하고 수색을 진행하도록 보장하고, 행방불명자들에 대하여서 사할린에 그들을 위한 위령비를 설립하되 이 비용 일체는 일본정부와 기업체가 부담할 것.
6. 피해자중 사할린잔류희망자들에게는 매 유가족당 10만달러를 미화로 일시에 보상, 지급할 것.

이상의 6개항을 사할린주 이중징용으로 인한 피해자 유가족 회의에서 채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중강제징용찾기발기자위원회 제공)

▶ 2001년 2월 23일
새고려신문 기사 발췌



일본인들이여

지금 우리들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들리는가?

1939~1945년에 조선 땅으로부터 사할린(당시의 이름 가라후도) 땅으로 징용된 조선 사람들 중에는 태평양전쟁(대동아전쟁)당시에 또 다시 사할린에서 일본 땅으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가라후도 내의 탄광에서 생산되는 석탄중에 철도가 가설되어 있는 지역의 석탄은 사할린 내에서 사용하고, 철도가 부설되어 있지 않은 서해안 에스도르 지역(도요하다, 도로동)에서 채탄되는 석탄은 선박편으로 일본 본토에 가져다가 군수물자를 만드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막바지에 몰려 미국의 폭격으로 선박운송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 지역에 있는 조선인 탄부들을 1944년 9월 또 다시 징용해서 군수기지가 몰려있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었던 이바라겐, 큐슈 지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시에 도요하다 탄광에서만 해도 150여명의 탄부들은 춥고 낯설은 이 사할린 땅에 자기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남겨놓고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들이야말로 태평양 전쟁의 후방전사라고 특별히 추켜올렸습니다. 그 때문에 남은 가족들은 기쁜 마음으로 눈물 한방울 보이지 못하고 남편과 아버지를 전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을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버려진 그들을 돌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남은 가족들은 말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오늘까지 눈물로 나날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후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나자 일본 정부는 사할린 내에 살고 있던 4만명의 일본인들을 바빠 일본으로 귀국시켰지만 특별 후방 전사라고 데려간 이중징용자들은 사할린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소식조차 모르는 이들의 가족들은 오늘날까지 외롭고 불쌍한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동생들과 함께 굶주림과 헐벗음에 젖은 고난의 삶을 살아 왔습니다. 그 부인들은 영영 남편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모두가 세상을 떠났고, 그 자식들은 아버지의 소식을 듣지도 못한 채 벌써 60고개를 넘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으며 고생을 견디다 못해 불쌍히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당시에 특별 후방 전사라고 불리던 이중징용자들은 이미 타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사할린에 살아남아 고난으로만 일생을 살아온 그 자식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그들이 당한 고생을 생각한다면 일본 정부가 무엇으로 갚는다 해도 그 보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56년의 세월은 흘러갔고, 새로운 세기인 2001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이들 이중징용자들의 후손은 일본 정부가 우리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당신 일본인들이여 지금 우리들의 목소리가 당신들에게 들리는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계속 투쟁을 벌릴 것이며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국제 소송법에 의한 재판까지 불사할 것을 강력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2000년 12월 16일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이중강제징용으로 인한 피해자 일동
사단법인 사할린주 한인 이중징용광부 유가족회

성명서

1939~1945년 태평양 전쟁중에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 반도 남반부 각지역에서 사할린(당시 '가라후도')에 있는 여러 탄광으로 조선인들이 강제 연행되어 노동력을 착취당한 것은 만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조선인 탄부들 중에는 1944년 9월에 또 다시 강제로 이중징용 당해 일본내지 대공업지대인 '큐슈'와 '이바라기현'의 각 탄광들에 배치되어 중노동에 종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정부는 이 이중징용되는 탄부들에 대하여 후방산업전사라고 격려하면서 사할린에 남겨지는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마치 출정하는 병사들을 전송하듯 기쁜 마음으로 만세를 부르며 아버지와 남편들을 전송하게 선동하였습니다.

일본 국민들이여!

태평양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도 벌써 56년이란 적잖은 세월이 흘렀고, 세기가 바뀌어 인류는 새 천년 시대인 21세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1944년 일본 정부의 전쟁수행을 위해서 후방산업전사라고 격려하면서 이중징용으로 연행당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버지, 형님들은 지금 어디 있으며 그들에 대한 생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그리운 아버지들은 전쟁이 끝나고 5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지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인과 자녀들에게는 이렇다 할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반세기 이상 이곳 사할린에 방치하여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들 이중징용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서는 일체 침묵으로만 일관했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 56년 동안 감추려고만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중징용자의 자손들이 살아있는 한 그동안 당한 멸시와 천대를 절대로 잊을 수는 없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를 영원히 일본정부에 빼앗긴 그 가족들은 일평생 과부아닌 과부, 고아아닌 고아가 되어 추위와 박대로 외롭고 굶주린 일생을 힘겹게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중징용자의 아내인 우리의 어머니들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생존하신 분들이 한 두 분 밖에 남지 않았고 당시 10-14세의 소년이었다던 그 자녀들도 이미 60~70대의 인생말기에 이르러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다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중징용자의 자손들이 당한 고통은 일본정부가 천만금의 금액을 내 놓는다 할지라도 보상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를 팔고 사고 하는 자식들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중징용자의 자녀들은 더 이상 이 쓰라린 기억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중징용에 관한 이 진실을 만천하에 공개하며 이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확실한 대책을 받아낼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성명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이중징용 탄부들의 자손들은 일본 정부와 당시에 관련되었던 기업체들에게 다음과 같은 우리의 물음에 명백히 대답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가. 일본정부가 후방산업전사라고 끌어간 우리의 아버지들을 1945년 8월 15일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 56년이 지나도록 사할린 땅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 가족들을 우리의 아버지들이 있는 곳으로 왜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까?

나. 전후 56년에 이르는 지금까지 무소식인 우리의 남편, 아버지, 형님들에 대한 소식이나 그들의 생사여부를 왜 아직도 확인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들, 이중강제징용탄부들이 영원히 처자를 잃어버린 대가는 어디서 찾아야 하고 또 젊어서부터 죽기까지 또는 늙어진 지금까지 가련한 인생을 살아온 우리의 어머니들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하며, 귀중한 소년과 청년의 시기를 희생시킨 그 자녀들의 인생에 대한 대가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라. 이중징용탄부들의 처, 자식들 중에 특히 1945~1949년에 식량문제가 긴박했던 생활 속에서 기근과 질병으로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나간 적지 않은 우리의 어머님과 형제들에 대한 보상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마. 이중징용 탄부들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일본정부에 빼앗겼기 때문에 식구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 몸으로 노동현장에 종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소학교 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채 반 문맹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공백을 또 누가 메워 주겠습니까?

바. 전 징용기간, 즉 1939년-1945년간의 미지불임금, 애국저금, 전시국채세납을 얼마나 물었는지 일본 정부는 계산이나 해 보았습니까? 이 미청산액은 누가 청산해야 합니까?

사. 남편없이 많은 자식들을 키우며 먹기 살기 위해서 고된 생활 속에 시달린 여성들은 마치 "짐승이 그 새끼를 버리듯"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자식들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고 말았습니다. 이 대가는 누가 또 어떤 보상으로 메울 수 있단 말입니까?

이상에 지적한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 일본정부와 관련기업체가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상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이중징용 탄부들의 자녀들이 오늘날 60~70대의 노년기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희망자들에게는 자기들이 소원하는 고국 땅 한국으로 영주귀국은 물론 주택제공, 생활보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일본정부에 요청합니다.

사할린 한인 이중징용 탄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영주귀국 및 보상문제에 관한 기본요구

1. 1945년 8월 15일까지 출생한 유가족들을 피해자로 취급하여 각 유가족에게 보상할 것
2. 고국인 한국으로 영주귀국 희망자들에게는 귀국자가 요구하는 지방에 개인 소유권이 보장된 주택을 제공하며, 부양자들을 동반하는 귀국을 보장할 것.
3. 영주귀국 유가족들에게는 생활 보상을 위하여 1인당 매월 20만엔을 지불하며 전 생애기간에 무상의료를 보장할 것.
4. 영주귀국 후 사망자에게는 망향의 동산을 비롯한 어디에든지 유언대로 매장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한국정부에 요청함
5. 이중징용탄부들 중 1945년에서 2001년 현재까지 생사여부를 알지 못하는 행방불명자들을 찾기 위한 탐사기구를 조직하고 수색을 진행하도록 보장하고, 행방불명자들에 대하여서 사할린에 그들을 위한 위령비를 설립하되 이 비용 일체는 일본 정부와 기업체가 부담할 것.
6. 피해자 중 사할린 잔류 희망자들에게는 매 유가족당 10만달러를 미화로 일시에 보상, 지급할 것. 이상의 6개항을 사할린주 이중징용으로 인한 피해자 유가족 총회에서 채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음

2001년 1월 27일

이중강제징용자찾기 발기자위원회	회장 안 명복
사단법인 사할린주 한인노인회	회장 전 상주
사단법인 사할린주 한인협회	회장 박 해룡